

문 대통령 “조선 산업,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겠다”

“친환경화·스마트화 물결, 하늘이 준 기회... 새 패러다임 적극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조선 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상 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이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상상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K-조선 비전 및 상상 협력 선포식’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 여러분, 조선산업의 부흥을 응원하기 위한 네 번째 거제 방문입니다.

첫 방문 때는 우리가 만든 세계 최초 쇠망리 LNG 운반선의 출항을 기념했고, ‘야말 5호’는 지금 북극항로를 함차게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술로 만든 3천 톤급 잠수함을 진수했고, ‘도산 안창호함’은 지금 우리 해양안보의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 명명식을 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는 출항과 동시에 만선으로, 화물 적재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거제에 올 때마다 세계 최강 조선산업 부흥의 희망이 쭉쭉 자라고 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산업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의 열정이 더해져 우리 조선 산업과 해운산업이 함께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주역 중 한 곳, 삼성중공업에서 조선·해운 관계자들과 함께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거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첫 승전 ‘육포 대첩’으로 나라를 지킨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은 당대 가장 획기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튼튼하고 방향 전환이 빠른 우리 함선의 특성을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세계적인 조선 부진 속에서도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따로 보지 않고, 조선산업과 해운업을 연계시켜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대 국적선사 HMM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초대형 컨테이너선 서프두 척을 발주하여 스스로 국적선을 확보하면서 조선사들에게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과일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같은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 전략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체질 개선에 나선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해 빠이픈 구조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힘썼습니다.

대형 조선사와 중소 협력사도 함께 했습니다.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학익진’ 전술로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체력을 회복한 조선·해운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때입니다.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나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친환경화·스마트화의 강점을 살려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굳히면서 동시에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첫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을 더욱 강하게 키워겠습니다.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저탄소 선박을 넘어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 시대도 준비하겠습니다.

무탄소 연료 운반선과 추진선의 앞선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현재 66%인 친환경 선박 세계 시장점유율을 2030년 75%까지 늘리겠습니다.

스마트 선박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총출산고 방지, 최적 항로 결정, 고장 예측 진단이 가능한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영할 것입니다.

동시에 해운, 철강과 같은 조선 전후방 산업도 스마트화하여 스마트업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 대량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내년부터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선산업 도약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미래인력양성센터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술을 디지털화하고, 제조공정을 자동화하여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이상 높일 것입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중소 조선소, 기자재업체가 독자적인 수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케팅·금융·수출·물류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설계부터 제조, 수리, 개조까지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광관선의 83%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체들의 국내 수주 기회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오늘 스마트업 데이터 플랫폼 공동 개발, 미래 인재 양성, 대·중소기업 상상 협력 등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기업과 정부, 유관 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상, 협력할 때 우리 조선산업의 힘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기회와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상상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더 월대한 미래를 만들어 갈 대한민국 조선과 해운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수/기자

[기고]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는 불법입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여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다. 다시 말해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인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폐쇄하고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그 역할을 상실한 채 관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곧 재난 발생 시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지연시키고 연기로 인한 질식에 이르게 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비상구 폐쇄·훼손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소방서에서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접수 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피난·방화시설·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가능하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어디서든 비상구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발견한다면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 지역 사회,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대응구조과장 이재정

경북농업기술원 ‘경북미래농업발전 전략기획단’ 운영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기획팀장 등 28명으로 구성

경북농업기술원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경북미래농업발전 전략기획단’을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략기획단은 최근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해 지역의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혁신적 농업기술과 신소득 작목을 발굴해 전략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구성된다.

기획단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획팀장 등 28명으로, 전략총괄팀·사업발굴팀·조직활력팀 총 3개 팀으로 이뤄진다.

전략총괄팀은 국내외, 시군별 농업 현황과 농업기술보급 체계를 비교해 경북 미래농업 방향 설정과 농업기술보급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발굴팀은 연접시군 공동 대규모 전략사업과 노동력 절감, 기후변화 대응 등 수요자 맞춤형 시범사업을 발굴한다.

조직활력팀은 농업기술보급 업무

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농촌진흥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내년 12월까지 10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10과제의 신규 사업 발굴과 경북 미래농업발전전략 보고서 발간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10일 농업인회관에서 첫 정례회의를 갖고 스마트팜, 식물

공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보급과 사인머스켓, 애플망고 등과 같은 경쟁력 있는 작목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신용승 경북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녹색혁명, 백색혁명의 주역인 농촌진흥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 지역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전라북도 최초·곰소 천일염업·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쾌거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전북도는 9일 도내 최초로 ‘곰소 천일염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국가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발굴·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어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까지 9개의 어업 유산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곰소 천일염업’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일염지로 특히, 간수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 소금 특유의 쓴맛이 적고 단맛이 나며, 염전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은 곰소만 갯벌에 오래 머물러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다.

이번 평가에서 곰소 천일염업은 전통 방식 그대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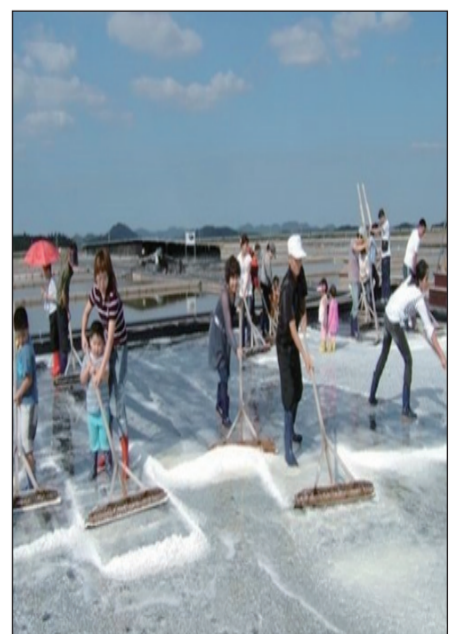
선정평가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류평가(‘21.7.28.)·현장평가(‘21.9.2.)·최종평가(‘21.9.2.) 3단계 검증을 거쳤으며 그 결과 ‘곰소 천일염업’이 전통 방식의 생산성, 주변 생물·식물 다양성, 역사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3년간 7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유산자원 기초조사, 곰소 천일염업 유지·관리 및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과 주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어촌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라북도 최초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최근 노을대교 기제부 예타 통과로

인해 곰소염전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향후 도내 어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소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전통어업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과 진솔한 소통 가져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10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위 위원들은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하여 9개 이전기관(지방자치단체 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장을 만나 개선이 필요한 정주 여건,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간담을 갖고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 등은 "이전기관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도의회와 전북도 및 시군의 여러 지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북 발전과 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비한 전북의 전략마련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용 위원장(군산3)은 "2차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지역차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지혜를 구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수렴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적극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익산2)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등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은 실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국책사업유치, 광역복합환승인프라 구축 사업 등 전북의 미래비전을 보여주어 있다"며 여러 공공기관의 지역상생발전 노력에 감사사를 표했다.

박희자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위원으로서 교육관련 건의사항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오평근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노조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 미흡하므로 지속적으로 교통, 환경 등 정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전북도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상생의 자세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할 것"을 말했다.

한편 2020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임원진과의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정취를 위한 정세균 전 총리 방문, △충남도의회 및 내포신도시 방문을 통한 광역의회 간 상호교류 등의 현장 중심의 특위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김승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안양천 횡단 교량설치 공사현장 점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9월 10일, 안양7동 224번지 일원에 시공중인 (가칭)서로교 교량설치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가칭)서로교 교량은 안양7동 구 동화아파트 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안양천을 횡단하여 교량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설치중인 교량

현장을 구석구석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부서로부터 교량설치 배경 및 추진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하천의 계획홍수위에 맞춰 시공하여야 하는 관계로 접속도로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확인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정부/기자



세종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10일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10일 제7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5일 발족한 이후 현장 방문을 포함해 총 7차례 간담회 등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을 수행한 바 있다.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진행해왔던 주요 연구 과제는 ▲양성이 평등한 세종 ▲꿈을 이루는 세종 ▲여성 안전의 세종 ▲가족이 행복한 세종 ▲이웃과 함께하는 세종 등 총 5가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 기초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심화된 일반직업이나 전문직업 훈련의 기회확대를 할 '여성취업 능력개발지원 거점기관'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존 사업의 보완 및 신규 시책 발굴 추진을 위한 '여성 행복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가정·성폭력, 성매매 등의

신고와 긴급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가정폭력 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의 중요성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활동 소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며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회원들과 관계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연구모임 종료 이후에도 연구모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우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여성의 눈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다자녀가구에 사랑의 손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저소득 다자녀가구에 직접 만든 송편과 후원 물품을 기부했다.

최수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장은 10일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서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에게 다자녀 가구를 위한 후원 물품(3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4자녀 이상의 저소득 다자녀 가구가 명절에 활용할 수 있는 꾸러미를 만들었다. 송편(2kg), 재래식 된장(3kg), 쌀(10kg), 김치(10kg), 김(10개 세트), KF94 마스크(80장), 화장지(10롤), 컵라면(1상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이 10가구에 전해진다.

선물 꾸러미는 회원들이 직접 지원 대상 가구를 방문해 전달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최수아 회장은 "다자녀 가정의 따뜻한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송편을 만들고 후원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후원한 물품이 추석을 맞은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84년 2월 설립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는 지난 3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후원하고, 5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수원 1~4호)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간식 후원 및 봉사 인력을 전폭 지원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경남도의회 한국학술정보협의회 국회도서관장상 수상

학술정보 및 저작권 공유실적, 전자도서관 이용실적 등 공로 인정 받아



경상남도의회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국회도서관장상(공로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은 전자도서관 학술정보 상호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도서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최근 1년간 원문 및 저작권 공유 실적과 전자도서관 이용 실적 등 참여도를 고려해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초청자 없이 국회도서관 유튜브를 통해 진행했으며, 경상남도의회는 국회전자도서관 서비스 활용도와 지식 공유 성과 등을 인정

받으며 전국 7개 우수 기관과 함께 수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김하용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속적인 의정 전문자료 확충과 지식공유를 통해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자료지원 등으로 의원 정책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력을 맺고 의회 자료실 전용PC를 통해 국회도서관 전자정보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정 정보 공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광용/기자

영등포구의회,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영등포구의회는 9월 10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고기관 의장, 오현숙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과 구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두 개조로 나눠 영등포 중앙지구대를 기점으로 영등포역 남부광장까지 실시했다.

특히 의원들은 추석을 맞아 영등포동 일대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 골목길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꽂초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했다.

고기관 의장은 "추석명절 많은 사람이 오가는 영등포역 일대가 깨끗한 거리로 유지되어 주민들에게 즐거운 귀성·귀경길이 되길 바란다"라며 "영등포구의회에서는 보다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울산시의회, '한국경제 대전환 선택이 아닌 필수'

시의회의는 10일 오후 2시에 대강당(본관 2층)에서 '한국경제 대전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명사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세계 경제 흐름에 선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전문가인 최배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한국경제의 정책과 흐름을 짚어가며 21세기에는 한국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국가, 20세기 선진국과 다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다"며 "K-민주주의가 만들어낸 K-문화와 K-방역 문법을 K-경제 문명으로 발전시킬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 모두가 은행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재정과 금융 민주화를 언급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출발점부터 금융시장에서 기술적인 운동장에 놓여있다. 금융시장의 공공성을 살려 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하며, 청년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게 투자를 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으로 소득재분배,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 시대와 4차산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울산의 조건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제한된 인원으로 대면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비대면으로 병행 진행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였다. 특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 공식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 진행으로 참여의 폭을 넓혔다.

김기현/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으비니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부 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GH, 청년층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5개시 43호 예비입주자 모집

GH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5개시 43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수원·용인·안산·김포·고양시에 위치한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며,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589,957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수원 지역 공급주택은 광고 신도시와 그 주변에 입지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주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인시 공급주택은 죽전역 및 수지구정역과 모두 인접하고 성북천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보다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주신청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

월 1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1순위 당첨자를 발표하며 내년 1월 중 2~3순위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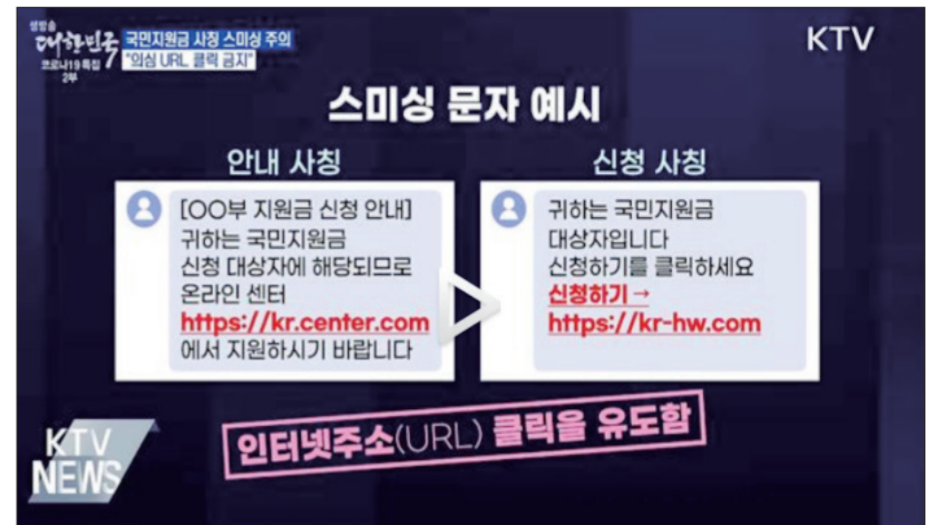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청년 계층이 주거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폭 넓은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국민지원금 사칭 스미싱주의-"의심URL 클릭 금지"

국민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내하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비서 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부 지원금 안내 문자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 의심이 가는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더라도 문자 내 인터넷 주소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앱 마켓이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다운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은행 보안카드

같은 중요한 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마시고 혹시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인증서는 즉시 폐기 후 재발급받고,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목록에서 의심되는 앱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24시간 스미싱 피해 신고를 접수·분석하고, 악성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할 방침입니다.

최광수/기자

제주도, 찾아가는 COP28 유치 기원 홍보버스 운영

10월 1일까지 도내 관광지·도심지 등 주요지역 순환 운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COP28 유치 기원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8월 22일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도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버스를 순환 운행하고 있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이 밀집하는 관광지와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운행하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COP28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캠퍼 퀴즈 이벤트 등도 진행하고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만의 강점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COP28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는 매년 197개 당사국이 모여 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기후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다.

올해 열리는 제26차 총회는 11

월 영국에서 열리며, COP28 개최국을 결정한다. 대한민국으로 확정되면, 환경부가 개최도시를 공모·선정하게 된다.

최재은/기자

정상적인 안내 문자처럼 보이지만, 국민지원금 신청과 접수 등을 사칭한 스미싱입니다.

모두 특정 URL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안내를 사칭해 악성 앱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피해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스마트폰 보안수칙을 발표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먼저,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와 사용 기한 등을 안

기재부 차관 "15일부터 외식쿠폰 사용재개...카드 캐시백은 10월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내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에 중단했던 비대면 외식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한다. 또 국민지원금은 이달 중 90% 지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속도를 높이며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9월 15일부터 7월에 중단됐던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만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한 소비자에게 1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 차관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수 위축 최소화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쿠폰 사용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의 정책 현황도 점검했는데,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은 이달 말까지 90% 예산 집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은 시행 3일만인 9월 9일 기준으로 예산 11조원 가운데 35.7%에 해당하는 3조9300억원을 1571만명에게 지급했다"며 "이달 말 90%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월 기준 4조2000억원의 92%인 3조8500억원을 175만8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해 당초 목표였던 추석 전 90% 지급을 이미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다음 달 소비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소비자에게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이 차관은 "올해에는 (추석 성수품 공급) 3주간 1.4배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13개 주요 성수



품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고, 이중 계란은 7월 하순 7500원대였던 가격이 9월 6533원까지 하락했다"고 했다.

정부는 계란의 가격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입식 절차를 이번 주 내로 완료할 방침이다. 또 하루 300만개 수준의 수입란 공급을 지속한다.

이 차관은 "배추 가격이 평년보다 14.6% 낮은 안정적 수준이지만 가을장마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가격이 오를 측면이 있다"며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의 즉시 발송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명태의 경우 평년보다 7.9% 가격이 높으나 정부 비축물량 6945톤을 최대한 전량 방출할 방침이다.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해 국민 체감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소고기의 경우 도축수수료 15만 원을 오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조기 공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다음 주부터 벨기에산 수입을 재개하는 등 수입을 평년 대비 5% 확대하는 등 공급이 확대된다.

이 차관은 "쌀은 지난해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높은 가격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등과 협력해 추석기간중 10~20% 할인된 가격에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산단 10개를 15개로 확대하는 한편, 총 3조2000억원의 재정 투자 등으로 일자리 3만 3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 전환은 한국

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첫 단지 선정 이후 2년째를 맞았다. 이 차관은 "정부는 노후 산단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을 줄이는 그린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그린산단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그린산단의 법적 근거가 된 '산업집적법' 개정 이후 올해 6월에는 하위법 후속 개정을 거쳐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산단 내 기업 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맵 작성 등 산단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전 성능과 품질 검증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도록 지원(올해 135억원), ICT 기반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100억원)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산단 디지털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61억원)하고, 연료전지 발전소, 태양광 등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110억원)를 확충하는 등 산단 그린화를 이루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산단 재직자 등을 위한 스마트 제조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실용 인력을 양성(350억원)하는 등 산단을 인간 친화형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의 :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044-215-2830), 물가정책과 (044-215-2770), 상생소비지원추진팀(044-215-2942),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최재은/기자

부평소방서, 방화문은 닫아주세요

부평소방서는 10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연기 확산을 차단해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화문 관리 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연기의 이동속도는 2~3m/s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m/s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는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문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올바른 관리 방법은 ▲평상시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 ▲방화문과 피난로 사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적치 금지 ▲화재로 인해 대피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피난 등이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방화문은 유사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라며 "평소 방화시설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양식어류질병 방역교육 실시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수산생물 질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2021년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고수온 영향으로 양식어류 면역력 저하 및 기생충 등 질병에 취약한 시기인 이번 달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수산생물양식자 및 종사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대상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면허·허가를 받은 자, 수면적 1,000㎡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춘 수산생물 전시·판매 운영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 등이 해당되며,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역교육은 총 10회로 이루어지며, 1회당 3시간씩 수산생물 방역기초, 수산생물질병의 이해와 건강한 수산생물 생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이해와 방역조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와 비대면 수산생물질병정보공유 플랫폼 스마트피쉬닥터(sfid) 관련 교육도 포함하여 안전한 수산생물 생산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역교육 신청은 수산안전기술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대한 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온라인 신청서 또는 전화로 사전 접수 받는다.

▲ 1차~4차(9. 6.~9. 14.) ▲ 5차~7차(9. 6.~9. 23.) ▲ 8차~10차(9. 6.~9. 29.)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교육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일정 및 온라인 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또는 (사)대한 수산질병관리사회에 문의하면 된다.

이철수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은 "수산생물 방역교육은 수산질병 관리법에 따른 의무 교육이지만, 어업인 스스로 질병 예방과 방역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므로 도내 양식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서울시, 시민이 그리는 광화문광장의 미래상...미리보는 광화문광장 일러스트 공모전

서울시, 9.13.~11.5. '미리보는 광화문광장 일러스트 공모전' 개최

시민이 그리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에서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서울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8주간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다양한 모습을 미리 느낄 수 있는 '미리보는 광화문광장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에서 보고 싶은 모습을 일러스트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는 광장, 피크닉·휴식·버스킹 등이 활발한 광장, 예술·축제 등이 열리는 광장 등 광화문광장 안에서 펼쳐지는 일상적·비일상적 모습을 소재로 일러스트 또는 손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면 된다.

출품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이미지 파일(jpg, png 등)을 제출하면 되고, 광화문광장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1인당 출품 가능한 작품 수 제한은 없으나, 수상은 고득점 1개 작품으로 제한한다.

디지털 일러스트는 사이즈 A3(297×420mm)/해상도 300dpi 이상 규격의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손그림(핸드드로잉)의 경우는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출품 작품에 대해 주제

적합성, 작품성, 상징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뒤 총 16개 작품을 수상 작품으로 선정하여 11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으로 총 16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각 200만 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 100만 원의 상금,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플라로이드 카메라가 주어진다.

수상작품은 향후 광화문광장 등에 전시될 예정이며, 각종 정책자료, 홍보기념품,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홍보하는 데 활용된다. 공모전 참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운영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사창촌 서울시 광화문광장기획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언택트(Untact)시기에 새롭게 조성될 광화문광장의 일상적·비일상적인 모습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리보는 광화문광장 일러스트 공모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코요태 멤버 가수 신지, 남동구 홍보대사 위촉

홍성그룹 코요태 멤버인 가수 신지가 인천시 남동구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남동구는 9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신지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지는 앞으로 남동구 주요 행사를 비롯한 여러 홍보 활동 및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강호 구청장은 "남동구를 위한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 연령층에게 받고 있는 사랑을 우리 남동구민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라디오 DJ로 활약하며, 최근에는 코요태 리메이크 신곡과 솔로 앨범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신지는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고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설레고 영광스럽다"며 "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 구민들이 구정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지는 앞으로 남동구 주요 행사를 비롯한 여러 홍보 활동 및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강호 구청장은 "남동구를 위한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 연령층에게 받고 있는 사랑을 우리 남동구민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성동구, 그린아파트 조성을 위한 그린리더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성동구는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친환경 그린아파트 조성을 위한 '그린리더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 이에 참여할 대상자를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

그린리더활동가 양성과정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연대책임 공유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지난 7월 기후변화 위기 속 더욱 중요해진 ESG에 맞춘 구정을 펼치기 위한 성동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50% 감축을 목표로 7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리사이클 장려,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등으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구의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이번 그린리더활동가 양성과정으로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환경활동가를 양성한다.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적용·실천이 가능한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시켜 나와 이웃과 지역이 함께 자연과 환경을 살릴 뿐 아니라 후손에게 건강하고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희망찬 발걸음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의 올바른 환경 보전 의식을 확립하고 자원순환 실천을 전파하기 위한 이번 양성과정은 자원순환, 쓰레기 문제,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정착에 관심이 많고 교육 및 활동 기간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성동구만의 독자적인 양성정책의 일환으로 자연과 환경을 살리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는 좋은 기회"라며 "교육 수요생들이 성동구 그린아파트 조성 사업의 선두에서 공동체 의식 확산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2021년 성동구 그린리더 조성사업
친환경 그린아파트 조성을 위한
그린리더
(환경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교육기간 2021. 9. 28(일) ~ 10. 14(일) 매주 목 14:00~17:00
교육장소 2000년 유흥동 주민센터 교육실
교육대상 20세 이상 성동주민 누구나 (18명 이내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 2021. 9. 6(월) ~ 9. 24(금)
신청방법 구청장 신청서 제출 (www.seodong.go.kr)
문의 및 접수처 성동구 공무원직무 공무원지원센터
02-206-4811~4815

친환경 아파트 입주자
인문·역사·언어
재능 기부·소셜벤처
교육 및 다문화지원 센터(이대) 교육 활동 / 체험/비밀키로 구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기간 및 일시, 방법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 지원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광진구, 추석에는 누구나 따뜻하게 '저소득주민 특별 지원'

광진구가 9월3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로 지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추석 명절 저소득주민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정 총 6,802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기초생계·의료기구에 현금 5만원을, 한부모 가족에는 현금3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1,27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진구 내 소규모 복지생활시설 대상자(장애인, 노인, 아동)와 다문화·보훈단체 등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가구에도 전통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2장씩을 지급한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이웃에게 위기가 되고 다함께 힘을 내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한 지원에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지원 및 보호강화

정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찬식/기자



서초구, 온라인 초등 뮤직페스티벌 '사운드오브서초' 합창·합주단 모집

따로 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합창·합주의 하모니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초등학생들의 음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초등 Music Festival 사운드오브서초 :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참여할 초등학생 합창·합주 단원을 모집한다.

'사운드오브서초'는 당초 권역별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발표회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초구 전체 초등학생들이 4개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1차 합창단원은 오는 30일까지 모집하며 2차 합주단은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 합창 발표회는 유명작곡가 윤일상씨가 작사·작곡한 '내가 바라는 세상'과 '행복합니다'로 진행되며 2차 합주 발표회는 '파란나라', '아름다운 세상' 2곡을 다양한 악기로 연주한다. 악기연주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일부 합창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초 초등1인1악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합창·합주 교육 영상과 악

보, 반주 음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개인 연습 후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제출하여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참여한 영상과 사진은 '2021 사운드오브서초 발표회' 영상으로 제작되어 각각 10월 말(1차), 11월 말(2차)에 "서초 초등1인1악기 온라인플랫폼"과 유튜브 "서초구 슬기로운 악기수업 채널"에 송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발표회의 참여자는 모두 2021 사운드오브서초 합창·합주 단원이 되어 발표회에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서초구 어린이 오케스트라(합창단) 구성시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전문 악기 연주자와의 1:1 레슨 기회인 마스터클래스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서초 초등1인1악기 온라인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이 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안타까운 마음에 온라인 초등 뮤직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성취감을 느끼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초등
서초구 온라인 뮤직 페스티벌
Sound of Seocho
합창/합주 단원 모집

서초구 초등1인1악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운드오브서초' 영상 발표회 개최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1차 합창단원 모집
2차 합주단원 모집

1. 초등1인1악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운드오브서초' 영상 발표회 개최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2. 합창·합주 단원 모집
3. 초등1인1악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운드오브서초' 영상 발표회 개최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4. 합창·합주 단원 모집

모집기간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집대상 초등1~4학년 학생
신청방법 서초구 홈페이지(www.seocho.go.kr) 또는 전화 신청
문의처 서초구 문화체육관광과 02-347-2866/2864

인천시, '자살예방의 날'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표창

인천광역시시는 9월 10일 '2021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자살에 대한 경각심과 자살 예방을 위한 '온라인 시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창자는 단체 3개와 개인 3명으로 ▲인천모범운전자연합회(회장 장석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안광열) ▲민들레지역복지(대표 장준혁 신부) ▲길병원 생명사랑위(대표 김대현) ▲(사)대한약사회 인천지부 전옥신 이사 ▲인천부평경찰서 합형조 경사 등이다.

표창을 받은 유공단체 및 유공자는 인천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자살예방센터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적극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

박남춘 시장은 "여러분의 노력덕분으로 우리시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었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10년 전 특·광역시 중 최고(32.8명)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019년 25.9명으로 특·광역시 중 최고의 감소율을 보

이고 있다. 2025년까지 매년 1명씩을 더 줄여 20.9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오늘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를 돌보며, 주변 이웃을 살피 자살을 예방하고자 기획한 이벤트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계자살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SAP)가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03년 제정했다.

정부는 '세계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일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해 자살예방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중남/기자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참여이벤트
2021. 9. 10(일) - 9. 22(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물 보고, 카드 만들기,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전자민주주의 강화" 스마트도시 관악구 실현

관악구가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생활밀접 도시데이터 실시간 서비스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새로운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의 우수한 공약이행 사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다운 지방자치의 방향을 조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이란 슬로건 아래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전자민주주의 강화 등 총 7개 분야로 나눠 공모형식의 대회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전국 159개 기초자치체에서 총 376개 사례가 경연을 펼쳤다.

구는 '전자민주주의 강화'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실시간 도시데이터 서비스 스마트관악구 구축' 사업이 혁신행정사례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간 서울시, 기상청,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 공공기관별로 흩어져 관리되는 86종의 실시간 생활·안전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소통 웹서비스를 비예산으로 자체개발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뉴스로 알 수 있었던 관내 화재나 응급상황 등을 '스마트관악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국 최초, 생활 밀접 도시데이터 실시간 서비스는, 전자민주주의의 근간인 신속하고 올바른 정보, 시민들의 편의성을 한 번에 보장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 미래 동력 산업의 이목이 데이터로 집약되는 가운데 스마트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악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를 강조했다.

관악구 민선7기 출범이후 2019년 최우수상, 2020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2019 공약실천계획 최우수상(SA), 2020 공약이행평가 우수상(A)에 이어 2021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최우수상(SA)까지 4년 연속 주민과의 약속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생활밀접 도시데이터 실시간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라면 모든 구정 역량을 총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점검... 76건 적발

부산시는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자치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2021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인택시 업체 52곳의 부제 휴무차량 661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76건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 등화장치 부적합 10건 ▲ 택시미터기 봉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 제공



인 불량 3건 ▲ 타이어 관리 소홀 9건 ▲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 20건 ▲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 10

건 ▲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 등 기타 위반 24건이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 구·군을 통해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5건), 개선 명령(39건)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정(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진욱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 출렁다리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위험요소 차단과 안전사고 예방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9월 15일 괴산군 달천에 설치된 연합협 구름다리와 충청도양반길 출렁다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차원에서 이날 현장을 방문한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박기순 괴산부군수 및 토목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케이블, 바닥 프레임, 난간 등 출렁다리의 주요부재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괴산 연합협 구름다리는 길이 134m에 준공(2016) 후 연평균 2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산세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설치돼 괴산지역 관광활성화에 중요한 시설”이라며,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과 사고발생 우려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예방활동으로, 주변 위험시설 등의 재난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민과 함께 재난취약시설 695곳(공공 475곳, 민간 220곳)에 대해 도민 안전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하동소방서, 위험물제조소 정기점검 후 3개월 내 결과 제출...위반시 과태료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적극 홍보

하동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이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은 정기 점검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조소 등을 3개월 이상 사용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소방서에 신

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하동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조현문 서장은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고자 개정된 법령의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예산군, 코로나19 및 추석명절 대비 전통시장 특별 방역점검!

예산군은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 및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7일부터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방역 점검은 코로나19 지역 집단감염 확산세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상인과 방문객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손세정제 비치, 고객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사항을 지도·점검 중이다.

또한 군은 지난 7월 29일부터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감염병 걱정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이 필요한 5일장,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인과 이용객 모두 더욱더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곡성군,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곡성군은 9월 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옥곡전통시장, 석곡전통시장, 곡성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 직원을 비롯해 담당 소방서 예방안전과, 곡성군민협력위원회, 가스코리아(주), ㈜효성엔지니어링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균열·손상, 누수 등 위험 여부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비상구 확보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아울러 추석 귀향객들의 방문에 대비하여 건축·소방·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실내 환기 등 방역 수칙 준수사항도 홍보했다.

또한 옥과 장날을 맞아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방역 용품을 배부하였으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했다.

군 관계자는 “올 추석에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방역상황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 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상홍기자



봉화군, 추석 대비 전통시장 취약시설 안전점검 나서

봉화군은 지난 9월 9일 추석을 맞이하여 귀성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봉화 상설시장과 역지춘양시장에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지역을 찾아오는 귀성객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이행을 홍보하고, 주요 시설물 및 전기, 가스, 소방 등 설비 시설의 관리실태

를 점검했다.

또한, 본격적인 추석 대비 국가안전대진단 자율안전점검 실천 캠페인을 이날 함께 실시하여 가정용, 다중이용시설용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귀성객들이 봉화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휴기간 중 예방활동을실시

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봉감도전석탑

고추말리기

반딧불이천문대

은행나무

서석지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주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의회**

수원시 염태영 시장,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빈틈없이 이뤄지길”

수원시·경기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발전적 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와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발전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빈틈없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공기관 이전 후 이전부지에 시차 없이 다른 기업·기관이 바로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해 ‘일시적인 공동화’도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균형 발전이라는 큰 뜻에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주변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시민들에게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2월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직후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



은 수원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대안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원시 공간변화 검토’ 연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번 협약에 수원시의 제안 내용이 담겼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광고 부지에 IT·BT(정보통신·생명공학 기술) 등 첨단기술 기반 기업·관련 기관을 유치해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기연구원 등 이전으로 발생하는 파장동 부지에는 재생에너지·업사이클(재활용) 전문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을 유치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순환경제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주변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력 사항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자

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염태영 시장님께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해주셨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에 유휴공간이 생기는데,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어서 공공기관보다는 오히려 미래 산업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나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 수원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전부지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우리 시의 요청을 이재명 지사님께서 수용해주시고, 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수원시와 경기도가 잘 협의해 오늘 협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 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개소다.

조혜영/기자

성남시 '마을공동체 공감 토크콘서트' 14~16일 온라인 개최

성남시는 오는 9월 14~16일 마을공동체 공감 토크콘서트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사전 신청한 70명이 참여하는 이번 공감 토크콘서트는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와 관심 의제에 따른 맞춤형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의 상호학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노하우 대방출’과 네트워킹을 위한 ‘우리 마을공동체 뽐내기’ 등이다.

이번 공감 토크콘서트는 마을활동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날짜별 오후 7시, 오후 2시, 오전 10시 등 여러 시간대에 편성했다.

같은 내용이 진행돼 총 3회 중 1회만 참여하면 된다.

성남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간 상호 학습과 네트워킹으로 관내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연대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마을공동체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용인시, “친환경 자동차 이용 불편 없도록 인프라 확대해 나갈 것”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불편 없도록 충전시설을 비롯한 인프라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백근기 용인시장은 9일 처인구 포곡읍 예비랜드 주차장 내 수소충전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곳은 관내 처음으로 생긴 수소충전소로 수소를 비롯해 전기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도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다.

백 시장은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시설을 비롯해 충전소 곳곳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관내에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생긴 만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이달까지 178대 보급에 그쳤던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이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2곳에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삼성물산(주), (주)삼천리,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와 협약을 맺고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협력해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수소차 보급에 힘쓰고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삼성물산은 예비랜드 주차장 내 부지를 제공했으며, 삼천리는 충전소 설치·운영을 총괄, 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 실제 운영을 맡는다.

조혜영/기자

광명문화재단, 2021년 '광명 신진·청년 작가 1기' 선정 작가전 첫 번째, 여인혁 개인전 개최

광명문화재단은 광명시 시각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작가 발굴 사업인 2021년「광명 신진·청년 작가 1기」공모를 통해 지난 7월 최종 3인의 작가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선정 작가전(배턴패스(Baton Pass))을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선정 작가 여인혁, 서지원, 키네시스(엄아름×박안식)는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릴레이 개인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광명 신진·청년 작가 1기」 선정 작가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여인혁 작가는 20여 년간 광명에 거주하며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과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을 전공하였으며, 식물을 매체 삼아 설치 작업과 피지컬 컴퓨팅 로봇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시각예술 및 그래픽디자인 기반의

비주얼프로덕션 요트서울을 운영하며 문화예술사업의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퐁퐁(pong pong)' 전시를 통해 인간과 자연, 도시환경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일상 속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도구화된 '식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카페와 상점 그리고 개업식과 결혼식, 장례식 등이 대표적이다. 식물은 경작지와 재배지에서 의미 전달의 수단이 되었다가,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 일용한 식량이 되기도 한다.

작가는 이런 현상과 식물을 통해 타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반추하며 생명을 관찰하고 깊이 생각한다. 사람은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무심코 하는 행동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피해를 보기도 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의 행동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또한 사회에 어떤 과급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시 관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모든 회차는 30명 제한, 거리두기 관람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실시간 코로나19 현황을 반영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매주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온라인 전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전시 중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드로잉 워크숍' '꽃을 나누는 시간'을 운영하며,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광명문화재단 예술기획팀로 하면 된다.

이후 전시 일정은 두 번째, 서지원 개인전 '완전한 불완전(Complete Imperfection)'(10월 21일 ~ 11월 5일)에 이어, 세 번째, 키네시스(UAL×PAS) 개인전 '일 그리고 일(work and work, one and one)'(11월 11

일 ~ 11월 26일)이 진행된다.

최만식/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시민토론회를 거쳐 지금 방안을 마련합니다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모든 광명시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기도형 평화ODA, 아태지역으로 확산... '평화ODA 플랫폼' 본격 가동

김보라 안성시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현장 방문

경기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간 평화 공적개발원조(ODA)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HDP 넥서스 위원회'가 도의 주도로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HDP 넥서스 위원회는 인도주의적(Humanitarian) 원조를 개발(Development)과 평화(Peace)로 연계(넥서스)하는 평화 ODA 사업의 발굴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아태지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플랫폼이다. 도는 지난 3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ASPAC)에 HDP 넥서스 위원회를 상설위원회의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여 6월 설립 승인을 받았다.

HDP 넥서스 위원회는 지난 7-9일 온라인으로 열린 UCLG ASPAC 총회에서 제1회 위원회를 개최, 향후 위원회 운영 및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위원회 현장을 안전으로 상정·채택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인사

지방정부 교류·협력 통한 아태지역 평화 ODA 확산 위해 'HDP 넥서스 위원회' 발족

말을 통해 "이번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평화 정착·확산에 기여하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태지역 국내외 지방정부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ODA와 HDP 넥서스' 주제로 기초발제를 한 이성훈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이사는 "평화 ODA를 지지하는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 한다"고 강조했다.

UCLG ASPAC 버나디아 탄드라데 위 사무총장은 'UCLG 공약 2021-25와 위원회'라는 주제의 두 번째 기초발제에서 "UCLG의 공약과 위원회의 활동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

아가기 위해 여성, 아동, 장애 등 취약계층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1회 HDP 넥서스 위원회에는 국내 14개, 해외 7개국 40개 지방정부·기관 등 총 8개국 54개 지역정부·기관 95명이 위원회 참가 사전 등록을 완료하는 등 각국 지방정부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경기도와 시도지사협의회, 대전, 부산, 전라남도, 제주, 전주, 군산, 경주가, 해외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캄보디아, 대만 등의 지방정부기관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아태지역에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수원국(受援國)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 평화가 확

산·정착되는 토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화 ODA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간 협의 및 지식·정보 공유 활동을 펼치게 된다.

'HDP 넥서스 위원회'의 출범은 그간 '경기도형 평화 ODA' 추진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 ODA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경기도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권고하는 'HDP 넥서스'(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 모델이 경기도와 한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경기도형 평화 ODA' 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기반으로 아태지역 지방정부들 간 평화 ODA 논의를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사업 발굴까지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조혜영/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9일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안성맞춤 전기충전소 지킴이 노인일자리 직무교육 현장을 방문해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의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관리업체인 로지시스의 전문강사 강의로 진행되었다.

안성맞춤 전기충전소 지킴이 사업단은 안성형 그린뉴딜 5대 분야 중 녹색교통 정책에 따라 새롭게 발굴된 노인일자리 사업단으로, 관내 충전소 10개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방법 안내 및 주변 환경 정비, 불법주정차 계도, 장비 고장 및 훼손 신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혜진 센터장은 "노인일자리 참

여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안성시는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안성형 그린뉴딜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새롭게 발굴하여 전기차충전소 관리 사업단, 다화용컴 렌탈 사업단, 수직정원 관리 사업단,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단 등 녹색 생태, 탄소 저감, 그린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안성시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환경 도시로 변화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보람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익성,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 사업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안산시, 전국 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광주시 곤지암읍, 추석위문품 전달

안산시가 '제12회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시는 지난 6월에도 '2021년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가장 뛰어난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시민 중심의 우수한 정책 도입 성과가 입증된 것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 공동주최로 전날 결과가 발표된 경진대회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등 모두 7개 분야로 진행된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가 총 376개의 사례를 응모했다.

경진대회는 전국 시·군·구 자치행정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학습·확산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해마다 열리고 있다.

안산시는 ▲온가족 이-음 '모든 가족이 따뜻하게 누리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참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유튜브 영상 발표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태아부터 아동, 청년,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 시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

는 생애주기 전환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품안에(愛) 안심 상해보험'을 시작으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태아) ▲외국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아동)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청년)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노년)이 꼽힌다.

이 같은 정책은 윤희섭 안산시장이 민선7기 출범 당시 '가족을 세워 시민의 행복을 지키겠다'고 시민과 약속하며 가족이 바로 설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실제 이행한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 결과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입증해낸 셈이다.

시가 도입한 정책들은 타 지자체

로도 과급되며 '안산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를 정립했다. 품안에(愛) 상해 안심보험은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입상하며 도내 타 시군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외국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외국인 재난지원금 등 역시 타 지자체로 확산 중이다.

윤희섭 안산시장은 "민선7기 안산시 슬로건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이 바로 설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 노력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라며 "시민 모두의 삶이 빛나는 생생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광주시 곤지암읍은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가구와 의료 취약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40개소를 방문해 추석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품 전달에는 이용호 읍장을 비롯해 곤지암 엑스포 로터리클럽 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동참했다.

위문품에는 쌀과 방역용 마스크, 곤지암 엑스포 로타리클럽에서 지원한 농산물 꾸러미(6종)를 함께 전달했으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에는 의료용 네발 지팡이도 함께 전해 드렸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곤지암읍에 위치한 ㈜지안우드 서영배 대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곤지암읍장은 "관내 기업체에서 지역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이 함께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예비문화도시 오산 두번째 지역문화인 영상제작

오산이음문화도시센터에서는 문화도시 오산이 추구하는 문화안전망 구축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위해 펜데믹 상황에서 특히 취약한 지역의 숨겨진 문화인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2021 월간 오산 문화인] 두 번째 영상을 지난 8일에 문화도시 오산 공식 유튜브 채널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에서 공개했다.

[2021 월간 오산 문화인]을 통해 발굴된 두 번째 인물인 문경호 선생은 시서화를 좋아하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다섯 살 때부터 붓을 잡았다고 한다. 현재도 오산시 양산동에 위치한 선생의 사랑채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마실이었고, 그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평생 그 경험을 가슴 속에 안고 살아왔다고 한다. 선생은 사회로 나와 사업을 하면서 그 기억을 잠시 잊고 살았지만 사업을 접고 나서부터는 남은 인생을 서예 작업에 매진하기로 했다. 붓을 다시 잡

게 된 선생은 74년 국전 대통령상을 받은 우족 양진나 선생과 사제지간을 맺게 되어 약 20년간 밥솥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매진했고, 우족 선생이 타계하기 전 '인경(문경호 선생의 호) 세교'라는 글을 써주며 문경호 선생을 제자이자 친구로 인정했다고 한다. 문경호 선생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썩혀지지 않고 널리 쓰여서 내 고향 오산에 기여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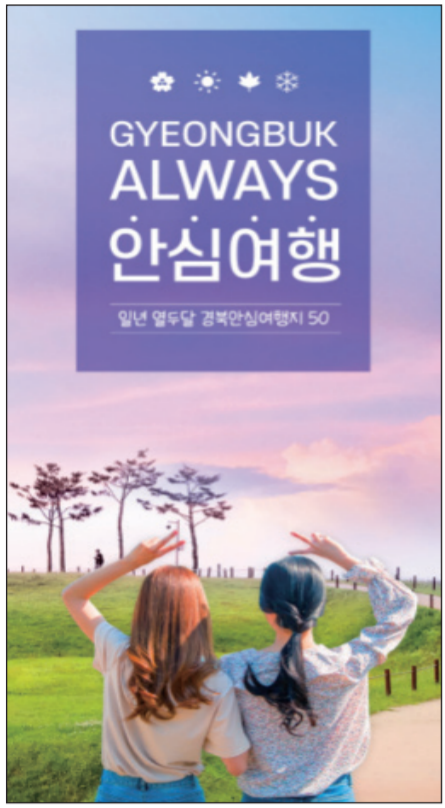
오산의 숨겨진 문화인 발굴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장을 위해 진행되는 [월간 오산 문화인]은 지금까지 공개된 두 편의 영상 이외에도, 생활문화장인, 시인, 피아니스트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숨겨진 오산의 문화인을 찾아가는 과정부터 문화인들의 활동 모습을 매 월 한 분씩 총 5명을 유튜브 영상과 카드뉴스 형식의 매거진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김남주/기자



경북도, '일년 열두 달, 경북 안심여행지 50' 홍보물 제작

계절별 여행지 홍보 리플릿 제작, 전국 배포



경북도는 코로나 시대에 일년 내내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는 안심여행지 50곳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릿 'Gyeongbuk Always 안심여행'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여행지는 시군의 추천을 받고,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SNS에서 뜨고 있는 여행지도 함께 조사해 선정했다.

무엇보다 안심여행의 주제에 맞게 밀집도가 높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여행지 목록을 살펴보면 계절별로 산과 바다, 숲, 전통마을, 테마파크 등 자연생태, 역사문화 관광지가 다양하게 담겨져 있고 여행지의 핵심 콘텐츠를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봄철 안심여행지로는 푸른 동해와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포항 곤륜산, 웰니스 관광지로도 선정되어 있는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과 영덕 인문힐링센터 여명, 가야산의 여신 '정견모주'의 이름을 딴 성주 가야산 정견모주길 등이 포함돼 있다.

여름에는 국내외 서퍼들의 핫플레이스 '용한리 해변'에 조성된 포항 용한서퍼비치, 도자기, 연인, 돌, 생태의 네 가지 테마로 조성된 문경 생태미로공원, 경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해수욕장인 울진 나곡해수욕장 등을 담고 있다.

가을 안심여행지로는 제각각 아름다운 7개의 코스로 구성돼 있는 경주 갑포각지길, 자작나무가 가득한 힐링명소인 김천 치유의 숲, 네티즌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선정된 군위 화본역, 육지속의 섬 예천 회포포 등 수목했다.

겨울 안심여행지에는 배를 정박할 때 쓰이는 '뗏'의 모양을 딴 포항 이가리돛잔망대, 각아지른 절벽 한 면을 인공폭포로 열린 청송 얼음골, 안전하게 겨울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칠곡 가산산성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경북도는 제작한 홍보 리플릿을 세계유산축전이 열리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의 안심여행 홍보부스를 통해 배포하고, 경북관광홍보관 등 관광안내소 5곳(경주, 안동, 대구)과 전국 주요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서도 배포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안심여행지 소개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조용한 '쉼'을 찾는 여행객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주한미군 부인회, 문경을 액티비티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해외 관광객 유입의 초석

문경시에서 이번 달 8일, 9일 양일에 걸쳐 주한미군 부인회 팸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일정에서 주한미군 부인회는 8일 '문경 관광사격장'과 '질라인' 등 문경의 액티비티 관광지, 9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문경새재'를 다녀갔다.

문경 관광사격장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클레이 사격을 주 종목으로 하는 곳으로,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게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권총 사격, 공기총 사격 등도 함께 체험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짜릿한 명중의 쾌감까지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문경 질라인은 산지가 발달된 문경의 장점을 심분 활용한 어드벤처 프로그램이다. 쾌적한 공기의 산실에서 쫄 하나에 몸을 의지하여 하늘을 나는 듯한 모험과 스릴을 느낄 수 있다.

문경새재는 한국관광 100선 1위에 선정된 바 있는, '문경'하면 떠오르는 대표 관광지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옛 황토길로,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된 청정 휴식 공간이다.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유서 깊은 유적과 설화가 남아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인회는 오미자, 약돌한우와 같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체험한다. 이러한 시식 및 체험으로 추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특산물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현 관광진흥과장은 "위드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문경시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국제 관광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니즈에 맞춘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해낼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반식기자

영양군, 202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영양군은 지난 9일「제12회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본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159개 기초자치단체의 376개 공모 사례를 심사한 결과 최종 94개가 선정되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경북에서 영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우수대응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은 오지마을 건강 사랑방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의료취약지 지원)을 주제로 대회에 참가하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영상발표를 거쳐 우수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오지마을 건강 사랑방은 교통



이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병원을 운영하며 ▲ 노인 의 팔, 다리, 허리 등의 통증 완화를 위한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 치매 검사 및 관리 ▲ 기초검사 및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기적인 마을 순회 서비스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찾아가는 행복병원, 방방곡곡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취약지역 원격 영상진료 확대 추진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밀착행정을 펼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지마을 건강 사랑방이 전국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영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은 민선7기 출범 이후 2019년 4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영양군 최초로 A등급(우수)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제12회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김세기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추석맞이 민생현장 배달대행업체 찾아 노고 격려

배달업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안전을 강조

이강덕 포항시장은 9일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으로 최근 화두가 된 배달업 종사자들을 만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국내 배달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배달대행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음식이나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빠른 배송에 중점을 두다 보니 배달업 종사자들은 안전 운전을 소홀히 하면서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강덕 시장은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많은 배달 건수에도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경북 공공배달업 '떡깨비' 출시일을 기념해 소비자 홍보와 함께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업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배달업 '떡깨비'는 공공성을 강조해 업계 최저 중개수수료(1.5%)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월 사용료 및 가입비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출시된 배달업이다. 또한, 포항사랑상품권 연계 결제가 가능하고 출시 기념 할인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

공한다. 한편, 포항시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과 별개로 9월 2일부터 160억 원 규모의 시 자체 재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았다. 지난 설 명절에 이어 2차로 추진됐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고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출연해 한 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전용대출을 지원해 약 180명의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았으며,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보전해주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육료 지원, 경영환경 개선 사업과 빈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제 위기로 급격한 생활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소비와 유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안도 필요할 것이다"며,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이 나오도록 많이 고민하고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울산 남구, 지역청년들과 청년정책 논의

9일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토론

울산 남구는 9일 저녁 구청 회의실에서 지역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서동욱 구청장과 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 2021년 청년정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설명 ▲ 청년정책 발전방안 토론 ▲ 분과별 안전 제안 및 활동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구 청년정책협의체는 남구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구성된 협의기구다. 남구에서 거주·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19~34세 지역청년 20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자체 밴드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고 청년정책(교육·주거 포함), 일자리, 문화·예술 등 3개 분과에 걸쳐 할

동하는 중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구에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정책협의체가 지역청년에게 필요한 갖가지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지역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구와 청년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구도 지역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구는 청년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정책화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기현기자

문경 청년오디션 문경 갓 탤런트, 성황리에 마무리



문경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만14세 ~ 만29세의 문경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문경 갓 탤런트(문갓탈)를 진행하였다. 문갓탈의 우승자는 지난 8월 28일 본선 무대에서 결정되었고, 9월 7일 시상식을 마치고 문갓탈은 5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춤과 노래에 재능을 가진 20여명의 5인 이하 개인 또는 팀이 참가한 이번 경연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였으며 온라인 예선과 본선 사전영상 누적 조회 수가 무려 2만을 돌파하며 문경 비대면 온라인 행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화의 거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오프라인 본선 무대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상승으로 인하여 무산될 위기도 있었으나 문경시는 이를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본선 무대를 마쳤다.

비대면 지침에 맞춰 본선 진출팀 경연과 축하무대는 사전 촬영되었으며, 본선 당일예 복면가왕 9대 가왕 여은, 예감엔터테인먼트 이상호

대표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 및 참가팀은 줌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게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였고 결과도 당일 집계하여 발표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문경여고, 문창고 연합 동아리 여바웃 팀이 차지하였고, 최우수상은 오석환, 우수상은 김대웅, 장유민 팀과 양예린씨가 수상하였다. 부상으로는 대상은 100만원, 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 2등은 30만원, 그리고 나머지 참가자 5팀에게는 10만원의 지역상품권(문경사랑상품권)이 수여되었다. 생중계는 시청자 수도 천여 명에 달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박정호 센터장은 "기대보다 뛰어난 무대를 보여준 참가자들의 실력과 열정에 놀랐고 이런 무대를 열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표하며 다음 기회에는 온라인이 아닌 문화의 거리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경남을 하나로 잇는 '2021 경남의 책' 선정

3개 분야 총 5권 선정(일반 2, 어린이 2, 지역 1)

경남대표도서관은 '함께 읽어요, 2021 경남의 책' 3개 분야 총 5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분야) 진정한 어른의 의미를 묻는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과 타인과의 공감과 연대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남윤유 작가의 '햇살 속으로 직진'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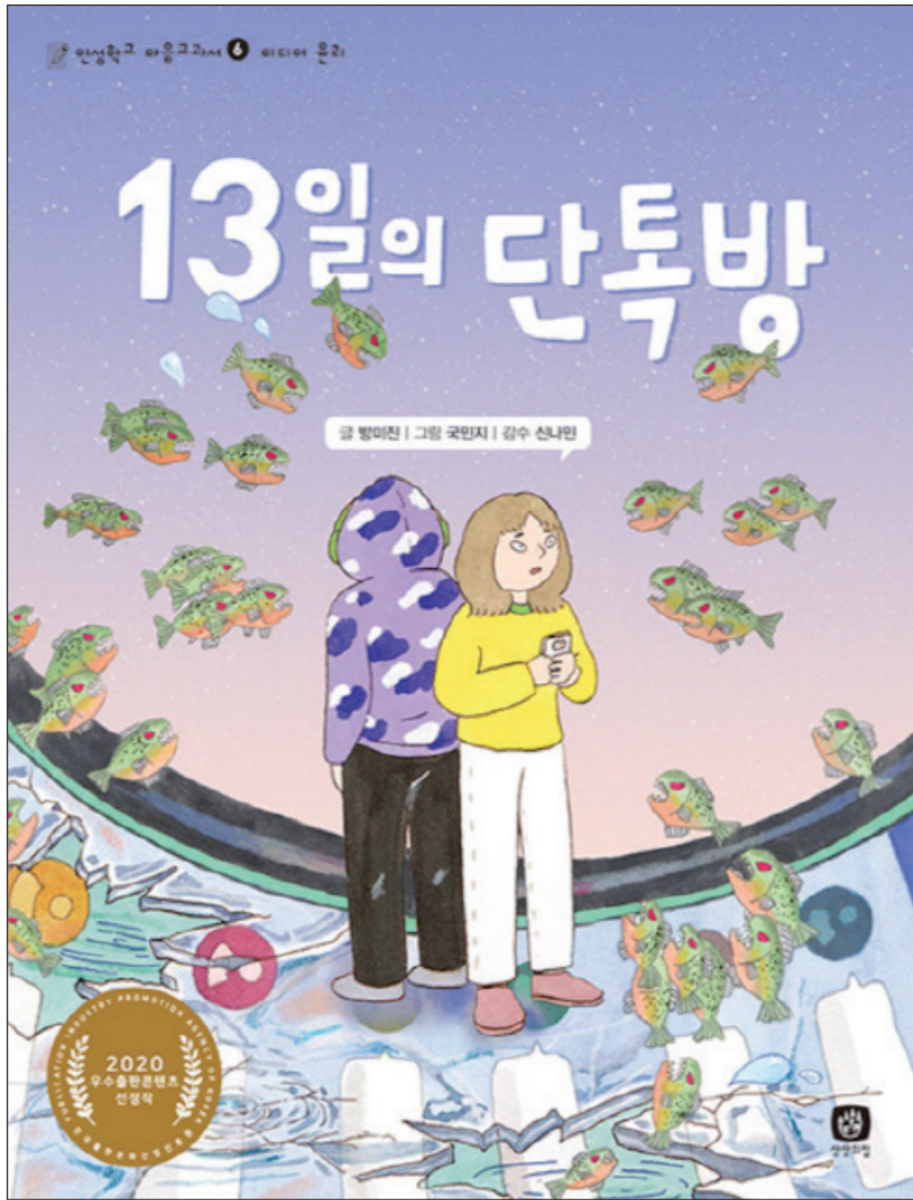
'순례주택'은 순례주택이라는 공간 속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모습을 통해 빈부격차, 소통단절, 환경문제 등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쟁점을 진솔하고도 날카롭게 그려낸 소설이다.

'햇살 속으로 직진'은 엄마의 자살을 겪은 한 청소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로, 청소년 시기에 접하는 자살과 방황 등 다소 무거운 소재를 섬세하고 따뜻하게 그려내어 청소년의 당면문제를 다시금 고찰해 보게 만든다.

(어린이 분야) 교실에서 여러 아이들이 13일 동안 사이버 세계에서 겪는 미디어 폭력을 다룬 방미진 작가의 '13일의 단풍방'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소설의 주배경이 되는 카카오톡 대화창을 삽화로 그려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한층 더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한편, 유전자 조작 기술로 인간이 식물과 결합하여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한 신양진 작가의 '녹색 인간'은 그 배경에서부터 벌써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먼 미래에서의 식량 대란 문제를 통해 건강한 식량 생산, 식량 공급의 불균형 문제 등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재밌게 풀어내고 있다.

(지역 분야) 경남의 특색을 반영하고자 올해 신설한 지역 분야에는 하동의 차 문화를 다룬 '하동에서 차 한 잔 할까?'가 선정되었다. 지



리산과 하동지역을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구름마'에서 펴낸 이 책은 작가들이 직접 취재하고 그린 책으로, 하동 천년의 차 문화와 역사 그리고 차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어느덧 책 속에서 마치 차 향기가 불어오는 듯하다.

2019년 처음 시작된 '함께 읽어요!! 2021 경남의 책'은 선정 도서를 매개로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대중 독서운동이다.

경남대표도서관에서는 도민의 적극적 참여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정도서 5권을 도내 공공 및 작은도서관 등에 배포하며 지역 도서관 연계 찾아가는 선정도서 작가 강연, 독후감 및 북 트레일러 공모전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대표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책을 통해 서로가 공감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독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2022 경남 하동세계차엑스포, 하루 한 잔 차 마시기! 릴레이 캠페인 홍보 실시

하루 한 잔 차 마시기! 실천 유도와 함께 대국민 온라인 소통강화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9. 10~ 10. 10, 4주간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전 국민, 엑스포조직위 및 각종 대표 직업군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하루 한 잔 차(茶)마시기! 실천 유도과 함께 홍보 이벤트를 연계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차문화 확산 및 엑스포 행사 개최 시 사전 불협 분위기 조성을 기대한다 밝혔다.

추진 방식은 대면 &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캠페인 참가자 중 50명을 선정하여 1만 원 상당

의 기프트콘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신창열 사무처장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루 한 잔 차 마시기!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를 널리 알리고, 차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조직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는 내년 4월 23일에서 5월 22일에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군(하동스포츠파크,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과 경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초 차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로 열린다.

최광용/기자

밀양문화재단 UCC 영상공모전 개최

밀양문화재단과 밀양의 문화예술, 역사 주제 공모

밀양문화재단은 우리고장 밀양의 새로운 문화예술 스토리를 개발하고자 <밀양문화재단 UCC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밀양문화재단과 밀양의 문화예술, 역사>를 주제로 진행되는 UCC 영상공모전은 연령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별도의 형식제한 없이 3분 내외의 영상을 직접 제작해 개인 유튜브나 SNS에 업로드한 뒤 밀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양식으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11월 중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

쳐 총 9작품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밀양문화재단 유튜브 채널과 밀양강 상설프로그램 콘텐츠로 활용한다.

밀양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밀양문화재단과 밀양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밀양의 색다른 문화예술을 발견하고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남궁영기/기자

즐거운 생업, 거창韓 사회적경제가 모였다!

삼에 스머드는 사회적경제 홍보

거창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군청 앞 광장에서 거창군사회적기업협의회와 민·관 협력으로 '추석맞이 사회적경제 특별기획전'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10개소와 마을기업 3개소가 참여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회적경제 효과를 홍보하고자 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체험도 함께 진행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지난 3월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군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로고마크와 소시지를 제작해 군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홍보효과를 한층 높였다.

행사장에서 만난 주민 A 씨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 내 생산과 소



비가 가능하고 나의 소비가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손 소독제 만들기 and 롤렛 돌리기 체험까지 마련해 의미와 재미를 겸비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래 거창군에서는 현재 10개의

인증 기업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증가와 지역민 고용으로 지역경제를 밀거름이 되고 있다"며, "우리군은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병철/기자

북구, 택지개발지구 빈터 등 6곳에 꽃단지 조성

울산 북구가 주거단지 인근 유휴 부지를 꽃밭으로 조성해 지역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신천지구와 호계·매곡지구, 강동산하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빈터와 명촌 둔치, 달천철장 가로변 녹지, 농소운동장 입구 법면 등 6곳 4만㎡에 백일홍 꽃밭을 조성했다.

북구는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간 빈 공간으로 방치돼 쓰레기와 오물투기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어 왔던

장소를 우선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꽃단지를 만들었다. 또 둔치 내 유휴공간에도 코스모스와 백일홍을 심어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가을꽃이 진 후 다음달에는 6곳 5만5천㎡에 안개초와 양귀비, 유채꽃 등 봄꽃 씨앗을 뿌릴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그간 소규모로 꽃단지를 조성해 오다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해 도심 속 곳곳에서 꽃을 즐길 수 있

도록 했다"며 "내년 봄에는 포토존 설치, 꽃단지 내부 통로 조성 등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물론이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밀양문화재단 UCC 영상공모전

User Created Contents

2021. 10. 18. (월) ~ 11. 12. (금)

2021. 11. 중 밀양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대상: "밀양문화재단과 밀양의 문화예술, 역사"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밀양의 색다른 문화예술을 발견하고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분	인원	시상금
대상	1명 (월)	1,000만원
최우수상	1명 (월)	상금 300만원
우수상	2명 (월)	상금 150만원
장려상	4명 (월)	상금 50만원

밀양문화재단

부산어촌민속관, 2021년 특별전 '해양과 환경' 개최

미술과 환경의 만남...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전시

부산어촌민속관 2021 특별전

미술로 풀어보는

해양과 환경

Ocean and Environment

2021. 9. 14. (수) ~ 11. 14. (토) 62일간

부산어촌민속관 기획전시실 2층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부산환경미술협회와 함께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62일간 부산어촌민속관(북구 화명동 소재) 2층 기획전시실에서 회화전「해양과 환경」특별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해양과 환경」전은 인간이 환경변화에 명백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에 인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마련됐다. 민속관은 미술전을 통해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회화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미래 환경에 대한 희망을 전한다.

이번 전시에는 부산환경미술협회 작가 30여 명이 참여해 미술과 환경의 만남, 해양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낸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등 회화작품 30여 점이 출품된다.

전시작품은 ▲ 행복한 바다를 표현한 박호 작가의 '레드 앤 블루' ▲ 해양도시 부산의 인상을 수채화의 물감으로 묘사한 정인성 작가의 '부산항 인상'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중립적으로 바라본 김경미 작가의 '희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박호 작가의 '레드 앤 블루'는 아름다운 바다의 이미지를 푸른색으로 표현하고 붉은 하늘과 대비함으로써 바다가 환경의 소중한 유산임을 강조하였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해양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남궁영기/기자

전북교육청, 다문화가정 학부모·자녀 소통 돕는다

학생 정신건강 증진 뉴스레터 5개국어로 제작... 올바른 자녀 지도법 등 담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특별한 자료를 제작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1 학생 정신건강 증진 뉴스레터 특별호'번역판을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올바른 자녀 지도법(초등)'과 '부모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중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레터를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필리핀어 등 5개국어로 발간한 것이다.

'올바른 자녀 지도법'에는 △많은

칭찬해주기 △부모의 감정 먼저 다스리기 △아이의 자존감 존중해주기 △자녀 지도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정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에서는 △자녀의 이야기 경청하기 △자녀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기 △자녀의 입장과 감정을 듣고 공감을 표현한 뒤 부모의 입장 전달하기 △자녀의 영역과 자존감을 존중해주기 △문제 행동을 보일 경우, 그 행동에 대한 의견 물어보기 등과 같은 의사소통 기술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녀와 대화 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예시를 들어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다국어판 뉴스레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부서안내→민주시민교육과→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자료실→번역자료실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와의 소통을 어려워하고, 자녀를 역시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모국어로 의사소통 기술 및 올바른 자녀 지도법 등을 안내해 자녀와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옛길 따라 늘어선 고인돌 무리”,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 전북도 기념물 됐다

전북 고창군은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高敞 上金里 支石墓群)'이 제8차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고시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은 고인돌 축조 방법과 변화양상, 지역적 특색 등 우리나라 고인돌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됐다.

고인돌군은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가릿재 고갯길을 따라 2.7km 정도 범위에 9개군('가'~'자'군) 218기 정도가 무리를 지어 분포한다. 이 중 고인돌의 밀집도가 높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나~라'군 87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도 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했다.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의 특징은 구조적으로는 덮개돌(상석)과 고인돌(지석)의 형태와 배치가 매우 다양하다. 바둑판식(기반식)을 중심으

로 기동형태 고인돌(柱形支石) 및 지상석곽식(地上石槨式), 개석식(蓋石式), 위석식(圍石式) 등 우리나라 고인돌 형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고인돌도 덮개돌 아래에 4개가 놓여진 것 외에도 중앙과 한쪽 부분에 추가로 더 배치된 것도 확인된다.

특히 고인돌이 가릿재 고갯길을 따라 열을 이루며 분포하는 양상은 청동기시대 해안과 내륙 산간 지역을 이어주는 옛길까지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고인돌군 주변으로 고인돌 축조와 관련된 채석장도 확인돼 고인돌의 채석, 운반, 축조 등 일련의 축조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고고·역사·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인정받았다.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은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다음으로 많은 수의 고인돌

이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입지적으로도 고창과 화순 고인돌유적과 유사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인돌과 견줄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즉,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은 옛길을 따라 축조된 독특한 분포

적 특성과 함께 매우 다양한 형식이 확인돼 고인돌의 축조 방법과 변화양상, 입지적 특색 등 우리나라 고인돌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현태/기자



남원, 추석맞이 '남원명품 과실' 수확작업 한창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 고행지 포도와 사과 효자 품목으로 전국 각광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남원시에서는 명품 과실수확이 한창이다. 특히 지금 수확되는 과실은 주로 지리산자락 고행지(운봉, 인월, 아영, 산내)에서 재배되는데, 일교차가 큰 해발 400~700m에 과원이 위치해 있어 맛과 향이 뛰어나고 저장기간이 길어 소비자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사상 유례 없는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가 예상되었으나 어려운 기상조건 속에서도 적기 비배관리와 쫓는숙기·과실숙기 등 재배에 정성을 다하여 탄생한 남원명품 과실이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출하되고 있다.

금년 남원시 전체 선별 포도(고랭지, 평야지)는 5,000여 톤, 금액으로는 270여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물량과 단가 등이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당도가 14~19°Bx로 높아 피로회복에 좋고 신선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암성분을 함유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남원시 사과는 금년 이상저온과 가을장마로 인해 열악한 기상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뛰어난 맛과 영양을 간직한 남원 명품사과의 인기는 끊이지 않아 남원시 효자 품목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남원 명품사과는 유익한 폴리페놀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며,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도시민들의 건강성으로서 사랑과 인기를 듬뿍 받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적극적인 공선회 참여로 공동선별을 통한 상품의 균일성 및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더 높여 나가고, 남원지역의 독특한 기후조건과 FTA과실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명품 과실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남출/기자



전주시, 저장강박증 치매노인 집 쾌적하게 개선

시·연탄은행, 서완산동 거주 저장강박증 가진 치매노인 택서 '사랑의 집 60호' 입주식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저장강박증을 가진 치매노인의 집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줬다.

시와 연탄은행은 9일 서완산동에서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치매노인 택에서 '사랑의 집 60호' 입주식을 가졌다.

사랑의 집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탄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60호 대상가구는 장애와 치매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중학생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룹홈에 입소하는 등 환경정비가 절실한 가정이었다.

이에 시와 연탄은행은 주방업체인 부엌나라에서 싱크대를, '㈜3수도'에서 수도공사를,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 도배·장관을, 재능기부자 김기섭 님으로부터 전기

공사 등을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약취로 넘쳐나던 쓰레기를 치우고 곰팡이를 제거했으며 집 전체를 리모델링해 쾌적하게 정비했다.

'사랑의 집 60호' 인근에 살던 주민은 "평소 약취와 벌레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치워진 집을 보니 마음이 후련하다"면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윤국춘 연탄은행 대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마련에 힘써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을 비롯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합심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정읍시, 치어 방류로 토종어류 자원 확충 나선다!

정읍시가 사라져 가는 토종어류의 자원 확충과 보전을 위해 나섰다.

시는 9일 동진천 등 주요 지방하천과 수계, 입암제 등 저수지에 붓어, 동자개 치어 3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 행사는 내수면 생태계의 서식 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어획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토종 어종의 자원을 증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수산인 단체와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최소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방류한 붓어와 동자개 치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만을 선별했다.

시는 방류된 어린 물고기들이 자연 생태환경에서 잘 적응하며 서식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공유수면 내 풍부한 어족자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류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생활환경을 잘 보전해야 한다"며 "불법 어업 행위로 인한 보호어종과 어린 물고기가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모두가 관리 감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생태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공유수면 내 토산 어종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동진천 등 주요 하천에 붓어·동자개 치어 32만 마리 방류



음주운전 꼼짝마! 익산읍 시내·외 음주운전 근절 앞장

얼마전 익산에 거주하는 A씨는 '설마, 코로나 시국인데 음주단속을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익산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동시에, 저녁모임 제한으로 낮술 모임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간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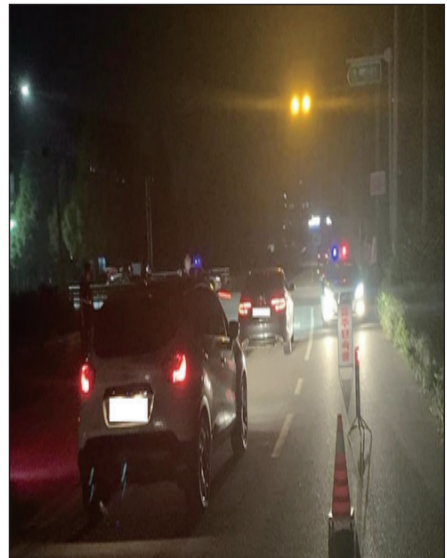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일 밤, 익산시내 주요도로 5개소에서 지역경찰과 교통경찰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전라북도 자치경찰 위원회는 지난 8월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통안전위협요소 중 ▲음주운전(26.6%) ▲과속·신호위반(24.6%) ▲보복·난폭운전(16.1%)을 우선으로 꼽았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익산시내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명절전

후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다시한 번 강조했다.

이선수/기자



“수묵의 짙은 향기, 해남에 퍼지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해남전 10월 말까지 해남 전역서 열려

해남군은 오는 10월말까지 대한민국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해남전'을 해남 전역에서 개최한다.

해남군이 주최하고, 행촌미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기념하고, 대한민국 수묵화 부흥에 큰 역할을 한 해남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우선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에서는 「공재 윤두서 자화상 및 가전화첩展」이 열린다.

공재는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로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과 함께 조선 후기의 삼재로 불렸던 문인화가로 그가 그린 자화상은 국보 제240호로 지정돼 있다. 또한 아들 낙서 윤덕희와 손자 청고 윤용에까지 3대에 걸쳐 뛰어난 화가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중국 화풍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삶을 묘사한 공재의 선구적인 회화관은 조선 후기 사실주의 화풍으로 이어져 풍속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녹우당 충현각에서는 「해남기념展」이 열린다. 고성주, 김경호, 김인선, 김장수, 명천식, 양은선, 박두규,

정동복, 최성정 작가가 참여해 공재의 뜻을 기리고,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해남 수묵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해남종합병원 동관에 위치한 행촌미술관에서는 「근대수묵거장, 그리고 해남展」을 개최한다.

당대 미술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인이었던 행촌 김재현 선생이 소장한 작품들로 이당 김은호의 제자였던 현당 김정영, 숙당 배정례 등 미술계를 이끌었던 거장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대흥사 성보박물관과 백설당에서는 「두류대흥展」으로, 2019년부터 2년 가까이 두류산과 대흥사를 화폭에 담은 유용민 작가를 비롯해 개성있는 그림으로 현대화단의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수묵작품이 전시된다.

마지막으로 땅끝순례문화관에서는 「선비의 꽃 대화 특별展」이 열려 행촌문화재단의 풍류남도아트프로젝트를 통해 해남을 방문했던 작가들이 그린 산이면 대화화원과 대흥사, 미항사 등지의 대화그림들을 선보이고 있다.

양영욱기자

엘로우시티 장성의 미래, 교육에서 찾는다

9일 장성군 최초 교육발전협의회 출범... 인재 양성 위한 제반사항 협의



장성의 교육 분야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군은 9일 오전 장성군청 2층 상합실에서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는 군의 교육 정책과 교육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자문기구다. 지난 6월에 제정된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설립됐다. 의장인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장성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육 관련 실무자, 학부모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신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2021년도 장성군 교육지원 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군은 올해 인재 육성, 교육 복지 등 4개 분야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62억원을 지원한다.

중점 사업으로는 장학금 확대와

고등학교 무상 교육, 무상 급식 지원이 꼽힌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제공하는 사업도 이목을 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 교육 관련 정책 제언, 교육지원사업 조정, 학력 향상 및 우수학교 육성 등에 대한 건의들을 협의하는 한편, 학교별 현안사업 관련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장성 교육의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하겠다"면서 "아울러, 안정적인 교육예산 지원으로 교육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지난 5월 장성교육지원청, 장성경찰서, 장성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재 육성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홍근기자

'빛그린 광양매실', 7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광양시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빛그린 광양매실'이 지역특산물 부분에서 7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국내 최고 소비자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기초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1차 대표브랜드를 선정하고, 국내 최고의 브랜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는 고품질 매실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방치 매실과원 정비, 정지·전정 인력 지원 및 동력전정기류 보급, 공동선별시설 등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지원했다.

광양매실의 소비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코로나 추세

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홈쇼핑, 랜선장터, 라이브커머스 등 전략적인 홍보·마케팅도 추진했다. 아울러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CF 등을 제작 방영해 광양매실의 명성과 유용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내외 매실 소비 저변 확대에 힘써 왔다.

김경호 부시장은 "'빛그린 광양매실'이 올해 7년 연속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명품' 광양매실의 생산과 유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식기자

NO.1 광양매실, 고품질로 소비자 신뢰 이끌



“해남군, 또 해냈다”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청렴해남’군민과의 약속 실현 ‘최우수’공동체 강화 ‘우수’2관왕 영예

해남군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분야 최우수상과 공동체 강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해남군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경진대회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민선7기 공약이행의 우수사례를 높이 인정받았다.

해남군은 2019년 경제분야 농민수당 사례로 우수상을, 2020년에는 지역문화활성화 분야에서 미남축제 개최 최우수상, 소식지·방송분야에서 SNS 홍보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의 실적적 행동 모델 및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현실에 기반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이행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 공동주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76개의 사례를 공모, 본선에 진출한 209개 사례에 대해 각 지자체의 우수 사례 발표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온택트 심사로 진행되었다.

해남군은 반부패·청렴·권익개선 분야에 '365일 청정 해남, 해남은 해냅니다!'를 주제로 민선7기 최우선과제인 '청렴'을 우수사례로 소개하였고,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내손내만 해남공동체'를 주



제로 해남군 주민자치와 공동체사업 사례를 담아 공모에 참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반부패·청렴 분야에서는 '공평·공정·공개' 3원칙의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반부패 청렴 실현을 위한 공직자 자정노력활동, 군민과의 소통·공감의 장 마련을 통한 '청렴해남 약속' 실현의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꾸준한 청렴도 향상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해남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2020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 내 유일 3년연속 2등급을 달성하고, 종합청렴도 평가 점수 또한 22개 시군 중 최고점을 받았다.

또한,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는 공동

체 활성화와 협업체 운영을 통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주민 주도 자치활동을 소개하고, 공동체 사업과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주민공론장 활성화와 기반을 마련하는 시책이 관심을 모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군민이 합심해 노력해온 결과 매년 해남군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더 좋은 평가를 얻게 되어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 실현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365일 청정 해남, 군민자치가 실현되는 행복한 해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완도군, 군정 발전 이끌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완도군은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8주간 '2021년 완도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군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로 인구, 기후변화,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보건·복지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참여 대상은 완도 군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 공모 제안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실 정책기획팀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상장과 시상금(금상 70만 원, 은상 5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며 "완도군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순천시, 정월박람회 연관 사업 현장 간부회의 개최

허석 순천시장은, 박람회장 주변 현장까지도 세심한 검토 주문

허석 순천시장은 9일 이른 아침부터 시 간부들과 함께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2023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이하 정월박람회)를 대비하여 연관 사업 현장 점검과 함께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간부회의는 관람객 입장에서 스카이크루브, 문학관 정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도축장환경개선 사업 등 정월박람회 문학관역과 순천만습지로 이어지는 생태관광축의 전반적인 경관 조성 상황과 사업 추진 속도를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스카이크루브는 지난 3월 공식 인수 이후 평년대비 이용률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 갈대열차 도입과 국가정원 임장권 통합 발권으로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허석 시장은 설수기 스카이크루브 이용객 급증에 대비하여 갈대열차 증차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월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국가정원을 동천, 그린웨이, 죽도봉 등 도심 내 자연 환경과 연결하는 정원인프라 조성 계획 및 문학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잇는 갈대열차 도로·보행

로 정비 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점검이 이어졌다.

문학관역에서는 순천 문학정원 조성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기 조성된 문학관과 낭트정원을 리뉴얼하고, 새로운 콘텐츠 보상을 통해 2023정월박람회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허석 시장은 문학정원이 단독 관광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출입로, 주차장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문학을 잘 모르는 관광객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천만습지에 이르러 흥내들 경관 농업지구, 도축장환경개선 사업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계획 보고에 대하여 PRT 노선에 위치한 각 사업이 완료될 경우 주변 경관 개선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조성 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2023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가 전도심의 정원화를 목표로 삼은 만큼, 박람회 내부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 현장 및 순천만 경관 개선에도 꼼꼼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강원 단(을 단)씨네 시나리오 창작개발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1년 강원영상인

발굴·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강원영상위원회는 2021년 강원영상인 발굴·지원사업인 '강원 단(을 단)씨네 시나리오 창작개발 프로젝트' 참가자를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강원 단씨네 시나리오 창작개발 프로젝트'는 강원도 내 영상인 또는 예비 영상인을 대상으로 단편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강원도 민으로, 도내 주민등록자 또는 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휴학생이다. 단편극영화 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 15명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단편 시나리오 창작활동비로, 1인당 70만원이 지원

되며, 선정된 단편 시나리오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단편 시나리오 작품집 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멘토링은 시나리오 로그라인,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작성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사무국장은 "시나리오는 영화의 시작이며, 단편영화는 영화인의 첫출발을 알리는 순간이라며, 내일의 영화를 이끌어 나갈 강원영상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원/기자



보령시,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D-300일 기념 카카오톡이모티콘 무료 배포

보령시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D-300일을 기념해 오는 13일부터 박람회 카카오채널을 신규로 추가한 3만명에게 '토니·꾸니·자리'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시는 지난 6월 박람회 D-400일 기념으로 진행했던 1차 이벤트에서 3만7500건의 이모티콘이 15분 만에 모두 소진되는 등 인기를 얻어 2차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이모티콘은 '토니·꾸니·자리'의 신나는 하루2'로 1차 이벤트에서 배포한 8종에 신규로 8종을 추가해 총 16종으로 구성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메리추석!' 이모티콘을 추가해 활용성을 높였다.

이모티콘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카카오톡 검색창에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이모티콘은 13일 오후 2시 이후 신규 추가한 채널 친구 3만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되며, 다운로드 후 30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1차 이벤트 종료 후 쇄도한 이모티콘 출시 요청에 대한 감응을 해소하고, 박람회 개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난 1차 이벤트가 뜨거운 성원 속에 완료되어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박람회 D-300일을 기념으로 마련한 이번 2차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란 주제로 내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전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고정화/기자



충북진로교육원, 하반기 톡톡(Talk Talk) 진로토크콘서트 운영

충청북도진로교육원 톡톡(Talk Talk) 진로토크콘서트. Includes event details, dates (9.9, 10.7, 11.2), and topics like '인생무엇인가 되는 길' and '의사 영, 한의사 오빠가 들려주는 '진'(rea l)' 의대 스토리'.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은 다양한 전문직업인을 초청하여 도내 초(5~6학년)·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고 있다.

진로교육원은 직업현장의 올바른 이해와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톡톡(Talk Talk) 진로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진로교육원 뿐 아니라 도내 원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북부권 및 남부권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토크 콘서트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업 현장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앞서 상반기인 4월부터 8월까지는 ▲연출가 ▲스포츠매니지먼트 ▲가수 등이 초청되어 진로토크콘서트를 운영했다.

하반기인 9월부터~11월까지에는 ▲미디어 창작 PD ▲의사 ▲한의사 ▲빅데이터 전문가를 초청해 진로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

김원호/기자

9월 9일 진로교육원에서는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42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창작 직업군에 관한 진로토크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였다.

이번 멘토로 나선 강연자는 유튜브(YouTube)를 연구하며 많은 유튜브 사용자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채널인 유튜브 전문 교육 채널 '유튜브랩'을 운영하는 박현우(허 PD)이다. 이외에도 10월에 김경중(의사), 공민기(한의사)를 초청하여 '진(real) 의대 스토리'를, 11월에 빅데이터 전문가 서진수가 초청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진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교배 원장은 "진로토크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구체화 시켜 이뤄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유명직업인을 초청한 진로토크콘서트를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젊은 밤! 멋진 밤! 부여밤 온라인 축제 10일 개최

제16회 부여 굿뜨래 알밤 온라인 축제. 밤내려온다 밤이내려온다. Includes details about the festival, dates, and prizes.

부여군은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부여 알밤을 알리기 위해 10일부터 제16회 부여 굿뜨래 알밤 온라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부여 굿뜨래 알밤축제 추진위원회와의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중지를 모아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형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온라인 축제를 처음 시행하게 됐다.

포털사이트에서 '굿뜨래밤'을 검색하면 부여 굿뜨래 알밤 외에도 굿뜨래 10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쿠폰 할인, 부여밤 홍보영상, 라이브방송 등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칼집밤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프래밤과 대보가 마련돼 있다. 프래밤은 품종이 탱글탱글하고 칼집을 내서 출고돼 에어 후라이에 약 20분 정도 가열을 하면 밤이 속껍질까지 훌라당 벗겨져 가정에서 군밤으로 먹기 좋다. 지난해는 조기에 품질될 정도로 흉량 잘 벗겨지는 부여 대표밤으로 잘 알려져

고정화/기자

충청남도,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도내 7번째 단지형 외투자지역. 고시...외투자지역 조성 '전국 최다'. Includes details about the investment zones and their locations.

충남도는 10일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FIZ)을 도내 7번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도내에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전국 30개소 중 전국 최다인 총 7개소(23.3%)*가 조성됐다.

면적으로는 전국 811만 4000㎡ 중 18.4%인 149만 6000㎡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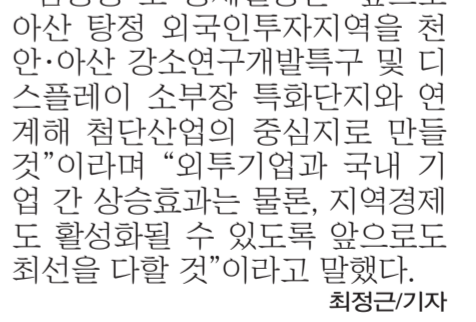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8만 5337㎡ 규모이며, 국비 387억 원 등 총사업비 645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번 지정으로 향후 5년간 수출 효과 2조 8750억 원, 매출액 4조 8476억 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 1조 8357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외한 도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6개소는 9월 8일 기준 전체 면적 141만 1135㎡ 중 임대 대상 면적 138만 1964㎡의 91.9%에 달하는 127만 527㎡(70개 업체)가 임대 완료됐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앞으로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을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며 "외투기업과 국내 기업 간 상승효과는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철원군, 자연 속 힐링테마 두루엘 캠핑장 개장

철원군 두루엘 숲속문화촌(갈말읍 지경리)이 9월 10일부터 '두루엘캠핑장'을 개장한다.

두루엘캠핑장은 20개의 테크와 개별 수도, 전기, 주차장과 공용 화장실 및 샤워장이 완비된 최신형 캠핑장으로 캠핑객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쉼터로 숲속 체험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단위 캠핑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코로나19로 10개 테크만 운영하며 상황이 호전되면 점차 늘려 나갈 예정이다. 이용료는 주중 4만원, 주말(금, 토) 5만원이며 캠핑객에게는 30%할인 된 금액으로 체험 시설(에코어드벤처, 목재문화체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예약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슈나들e)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매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6주



간의 시설예약이 가능하다. 두루엘 숲속문화촌은 매주 화요일 휴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슈나들e 또는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세나/기자



동작구, 구민감동 적극행정 문화를 꽃피우다... 우수공무원 시상



동작구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값진 성과를 이룬 공무원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주민, 부서 추천 등으로 접수된 10건의 사례를 △구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5개의 항목을 종합 심사해 선발했다.

우수상에는 ▲14년간 미등재된 건축물을 구유재산으로 등재하여 우리동네기움센터 설치기반을 마련한 정재훈 주무관 ▲코로나19 고응위 극복을 위해 동작구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 정지연 주무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르신 편의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한 김민건 주무관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진효준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이밖에 ▲구 주요사업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한 전은지 주무관 ▲스마트 배출·수거 시

스템을 구축한 김혜정 주무관 ▲임대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한 김필규 팀장 ▲사당동 소규모 공방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유오식 팀장이 장려 부문에 선정됐다.

최종 선발된 우수공무원 8명 전원에게는 성과상여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선도적인 적극행정 추진 기반 마련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작년에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진 만큼 올해 우수공무원 선발이 공무원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가 공식사회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라면 500상자 기부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사랑의 라면' 500상자를 기부했다.

박동수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장은 9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복지여성국장 집무실을 방문해 이귀만 복지여성국장에게 라면 500상자(1상자당 30개)를 전달했다.

라면은 장안구청(120상자), 권선구청(130상자), 팔달구청(120상

자, 영통구청(130상자) 등 4개 구 사회복지과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권선구 호매실동)는 지난 2001년 7월 설립한 단체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보령시, 만세청년창업배움터 최종 심사 대상에 '한겨울팀' 선정

보령시는 지난 9일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만세청년창업배움터'를 수료한 예비창업자 8개팀의 초기사업비지원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보령형 청년창업가 양성에 나섰다.

'만세청년창업배움터'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예비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및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보령형 청년창업 프로그램이다.

앞서 시는 공개모집한 예비창업자 8개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청년창업 교육을 마쳤으며, 9일 초기사업비지원 심사를 통해 사업화 지원금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에는 외부 심사위원 3명이 참여해 창업아이템의 참신성·기술성·시장성,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완성도·구성도, 기업가적 자질, 협업 및 상생의지 등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최종 선정 결과 대상에는 한겨울팀이, 최우수상에는 한결·업글인간·굴뚝굽은천복대·아이엔아이샵 등 4팀이, 우수상에는 녹색이념·유성진어몰 등 2팀이, 장려상에는 힐링주말농장팀이 선정됐다.

시는 대상으로 선정된 한겨울팀에게 사업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재료비, 외주용역비, 창업인테리어비 등 창업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최우수상 3팀에게는 500만 원을, 우수상 2팀에게는 300만 원을, 장려상은 25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을 수상한 한겨울씨는 "그간 창업아이템 구상과 실현을 위해 열



심히 노력해왔는데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만세청년창업배움터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만세청년창업배움터를 통해 양성한

보령형 청년창업가들이 사회 각 분야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법제화 이끈 성동구 필수노동자 정책, 1년 맞았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 법제화까지 이끌어 낸 '필수노동자 조례'가 10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9월 10일자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는 당시 커다란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고, 중앙정부에서도 '필수노동자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해 10월 돌봄노동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약속한 바 있으며, 올해 8월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직접 답변에 나선 자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떤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용역을 통한 필수업종의 범위와 기준을 선정하고 지원정책과 지원계획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4월까지 성동구는 총 7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차례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필수노동자 1,578명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216명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 전국 400여 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주한 유럽연합 대사 등 세계 각지의 외교 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성동구의 선도적인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과 추진으로 현재까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약 74곳에 이른다.

성동구는 10월 '필수노동자' 조례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돌봄종사자·보육종사자·공동주택 관리원·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료기관 비의료인력 등 필수노동자 각 분야별 유공자 5명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7일부터는 양일간 지역 내 필수노동자 6,5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100장과 향균물티슈를 지원하였으며, 이달 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대뉴얼을 제작해 450여 개 기관에 배부하고 기관별 자체교육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인 성동구에서 시작된 필수노동자 조례가 1년여 만에 법제화를 이뤄낸 것은 물론, 전국 각지에 전파된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보람을 느낀다"며 "선도적인 정책 발굴을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아 왔지만,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전국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원기자

성북구 우촌초등학교 '영어독서마라톤 Read-a-thon' 초등학교 전교생의 독서로 기부금 전달

지난 9월 8일 성북구 둔암2동에 소재한 우촌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뜻을 모아 또래 학생을 돕는 의미 있는 기부금 전달식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영어독서마라톤'(Read-a-thon)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 4,530,270원을 둔암2동 주민센터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승로 성북구청장, 권순자 둔암2동장과 김봉석 우촌초등학교 교감, 박철우 선생님, 1학기 전교학생회장단 학생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영어독서마라톤'(Read-a-thon)이란 우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영어책을 독서한 시간만큼을 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총 1,599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전통이 되어가고 있다.

금년도 기부금 수혜대상과 지원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우촌초등학교 1학기 전교학생회장단은 기부금 수혜대상과 지급방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

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생활하는 또래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서지원 사업 및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공급을 돕기 위한 반찬지원 사업으로 결정하였다.

둔암2동주민센터는 금년도 기부금 453만원을 학교의 뜻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복지기금으로 활용, 관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에게 10만원 상당의 도서 및 반찬 쿠폰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촌초등학교의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6년 간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우촌초등학교 학생 및 모든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장을 드린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촌초등학교 김봉석 교감은 "우촌초등학교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서 큰 기쁨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으로 지역주민들과 다 같이 행복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대전 대덕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외국인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고액 현금 인출



대덕경찰서는 9. 9. 국민은행 OO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국민은행 OO지점 은행직원 A씨는 지난 8월 3일 신한잔에 연고도 없는 피해자가 외국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현금 4,500만원을 인출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대덕경찰서장은 고마움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액의 현금 인출 시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이 과정에서 성동구는 정부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먼저 올해 초 방문돌봄종사자·방과 후 교사 대상 한시지원금 지급 대책이 발표되자, 성동구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의 소득 자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여 대상자 확대를 이끌어냈다.

또한 필수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백선 우선접종 대상자 확대 지정은 건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 관리원·미화노동자 등이 지자체 3차 자율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당초 3분기로 예정되어 있던 교육·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2분기로 앞당겼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필수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 전국으로 확산시킨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은 만큼, 성동구는 그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1년간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지

원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용역을 통한 필수업종의 범위와 기준을 선정하고 지원정책과 지원계획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4월까지 성동구는 총 7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차례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필수노동자 1,578명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216명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 전국 400여 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주한 유럽연합 대사 등 세계 각지의 외교 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성동구의 선도적인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과 추진으로 현재까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약 74곳에 이른다.

성동구는 10월 '필수노동자' 조례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돌봄종사자·보육종사자·공동주택 관리원·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료기관 비의료인력 등 필수노동자 각 분야별 유공자 5명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7일부터는 양일간 지역 내 필수노동자 6,5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100장과 향균물티슈를 지원하였으며, 이달 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대뉴얼을 제작해 450여 개 기관에 배부하고 기관별 자체교육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강성원기자

뉴노멀시대를 준비하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11월 1일 '2021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대구 디지털포럼' 개최

대구시는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 지정(2017.11) 4주년을 맞아 11월 1일부터 2일간 '2021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대구디지털 포럼'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으로 유네스코 도시 간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대구시 주도의 디지털 포럼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임시 랜선스튜디오를 조성해 대면·비대면 혼합형식으로 진행되며, 디지털시대를 준비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AV/VR 등 다양한 미팅테크놀로지 접목을 통해 전 세계 800여 명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들에게 스마트시티 대구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매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들과 문화예술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해왔다. 작년 이어 팬데믹이 지속되고 직접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올해는 임시 랜선스튜디오를 조성해 온라인 디지털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미팅 테크놀로지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8천만원을 지원 받아, 대구형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미팅테크놀로지를 접목해 첨단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이고 도래할 뉴노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메타버스 상에서 아바타

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 포럼 및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행해지던 대면 포럼 이상으로 다채로운 경험을 가능케 해 행사에 대한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교류가 중단된 이래 처음 모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의장단들과 국내 창의도시 관계자, 문화예술 전문가 등 50여 명이 직접 참여하며, 전 세계 246개 창의도시 네트워크 관계자와 전문가 등 8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웨덴의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노르셰핑 시(市)와의 문화교류 업무협약, 창의도시 워크숍, 창의도시 전시관 및 창의도시 간 협업화 퍼포먼스(전주 비빔밥, 광주 미디어아트 공연, 해외 창의도시 음악협연) 등 오프라인에서의 부대행사도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대구 디지털포럼이 비대면 시대에 도래할 문화예술 분야의 기회요소와 이에 따른 표준방향을 논의할 장이 될 것이다"며, "더불어 전 세계 창의도시들에게 대구시가 미래형 온라인 회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디지털 선도도시로서 강한 이미지를 각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수원시 한림도서관, '여기에서 행복해지는 여행인문학시간' 수강하세요!

수원시 한림도서관이 2021년 길 위의 인문학 2차 프로그램 '여기에서 행복해지는 여행인문학 시간'을 운영한다.

9~11월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여행 관련 책을 읽고,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며 힐링할 기회를 제공한다.

김글리 작가가 9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매주 화요일(오전 10시~정오)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다.

첫 강연은 오는 28일 '여행, 미룰 수 없는 자유'를 주제로 주제 도서인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읽고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 10월 5일 '어떻게 살까? 세계 친구들이 일러준 인생 오답'(김글리 작가의 '완벽이란 놈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10월 12일 '이대로 괜찮을까? 삶의 갈림길에서'(엘 브라이슨 작가의 '나를 부르는 숲')가 진행된다.

또 10월 19일 '언제 행복한가?

내 삶의 행복을 찾아서'(에릭 와이너 작가의 '행복의 지도'), 10월 26일 '여행, 여기에서 행복해지는 일'(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 11월 2일 '삶을 재발견하는 여행 글쓰기'가 예정돼 있다.

이번 강좌는 수강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강의에 참여할 시민은 한림도서관 홈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 행복해지는 여행인문학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한림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강좌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여행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강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도서관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돼 지난 6~7월 1차 프로그램으로 '먹고 읽으며 여행하는 유럽'을 운영했다.

조혜영기자

2021년 한림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차
길 위의 인문학

'여기에서 행복해지는 여행인문학 시간'

2021. 9. 28 ~ 11. 2(매주 화)
10:00~12:00
온라인 수강 (지역에서 ZOOM 접속)

- 9.28.(화) 10:00-12:00 **여행, 미룰 수 없는 자유**
주제도서: 여행의 이유 | 김영하
- 10.5.(화) 10:00-12:00 **어떻게 살까? 세계 친구들이 일러준 인생오답**
주제도서: 완벽이란 놈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 김글리
- 10.12.(화) 10:00-12:00 **이대로 괜찮을까? 삶의 갈림길에서**
주제도서: 나를 부르는 숲 | 엘 브라이슨
- 10.19.(화) 10:00-12:00 **언제 행복한가? 내 삶의 행복을 찾아서**
주제도서: 행복의 지도 | 에릭 와이너
- 10.26.(화) 10:00-12:00 **여행, 여기에서 행복해지는 일**
주제도서: 모든 요일의 여행 | 김민철
- 11.2.(화) 10:00-12:00 **삶을 재발견하는 여행글쓰기**

강사 김글리(작가, 여행가)

대상: 중학생 이상 일반 시민
장소: 2021. 9. 6.(월) 10:00 ~ 한림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도서관 모바일 앱
문의: 031)228-4858

세종시, "장군면 승승장터로 놀러오세요"

11월 14일까지 일요일마다 '승승장군 한다리 승승장터' 열려

장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021년 9월 12일(일) ~ 11월 14일(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군면 연기회관 뒷마당 (주차장부지)

한다리 승승장터

판매마당: 직접 수확한 농산물 및 가공품, 관여품, 먹거리 등
체험마당: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거(메이킹, 가죽 등) 전통놀이, 아로마테라피(마주 만들기) 등

주최: 세종특별자치시 | 주관: 장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장군면 도래리 신기면협의회 | 후원: 우리마을문예회 | 후원회: 장군면 주민자치위원회(010-5060-8005), 장군면 사무소(010-9735-9606)

최재은기자

은평구, 학부모 시즌특강 '고은영 저자와의 만남' 진행

은평구는 은평구평생학습관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과 오는 17일, 24일 오전 10시 '고은영 저자와의 만남'을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한다.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은 학부모 시즌특강으로 '영어 그림책 매일 듣기의 기적'의 고은영 저자와의 만남을 마련했다. '영어 그림책 매일 듣기의 기적'은 엄마표 영어 대표 육아서로 학부모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강연은 총 2차시로 구성돼 성인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저자가 13년 동안 세 아이에게 영어책으로 가르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한다.

신청은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원은 선착순 80명까지 접수 받는다. 참여비는 무료이며 수강을 위해서는 화상 수업이 가능한 기기와 인터넷 연결이 준비돼야 한다.

강성원기자

2021. 9월 17일(일) 오전 10시 ~ 11시
은평구 평생학습관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

9월, 저자와의 만남
엄마표 영어의 시작에서 있는 부모를 위한
김도영 작가의 '영어 그림책 매일 듣기의 기적'

대상: 초등학생 이상 일반 시민
장소: 은평구 평생학습관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
문의: 02)260-9999

안동 문화산업 콘텐츠 기업, 각종 대회 수상 휩쓸어

안동시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1인창조기업인 ㈜금계당이 '2021 대한민국명가명품대상'에서 '명가명품 브랜드부부'에 선정되었고, ㈜나루는 '제14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금상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의 진흥원은 2018년부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콘텐츠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왔다.

한국소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명가명품대상'은 전통·품질·소비자 명성을 유지하고,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기업·브랜드 및 명인·명장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명가명품브랜드부부에 선정된 ㈜금계당의 '별바랑'은 대구서씨 생쌀 발효방식의 5대째 내려오는 술을 상업화한 전통주로 '별바랑'이란 이름은 금계당이 경북 안동시 일직면 바랑골에 위치한 데서 비롯됐다고 한

다. 기존 방식에는 없는 생쌀과 누룩으로 만든 발효법으로 마실 때는 향긋한 풍미가 느껴지며 깔끔한 끝맛이 일품이다.

또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수상한 ㈜나루의 'UFO보트'는 UFO상의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인 전통 레저보트로, 선내에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어 가족단위로도 즐길 수 있으며,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2021 부산국제보트쇼' 첫선을 통해 '올해의 보트상'을 수상하며 색다른 감성보트로 이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UFO보트'는 다가오는 가을 경주전북면 성지서수지에서 첫 운행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문화산업 콘텐츠기업들의 수상 성과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우수한 수준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결과라

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흥원의 다양한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제천 미식투어 전국에 알리다

제천시가 여행전문 매거진에서 선정하는 '미식투어를 떠나고 싶은 지역 베스트 5'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과는 차세대 스마트 열차 SRT의 고객과 비즈니스맨을 위한 월간지인 SRT매거진에서 1차 독자 설문, 2차 SRT매거진 기자, 한경미디어그림 여행·문화 전문기자 등 10여명의 전문가 그룹 심사 평점을 합산하여 선정되었으며, 특히 "제천시는 무엇보다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국내 대표미식 여행지라는 차별화된 이미지와 안전(안락), 교통, 숙박 등의 기준에 부합,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지"로 언급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추석특집 9월호에 소개된 제천가스트로투어 미식여행상품은 2시간동안 약선음식거리와 전통시장을 걸으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상품출시후 전국 미식가들과 방송사, 인플루언서, 블로거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며

지역 대표 음식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의 대표 미식관광상품인 가스트로투어가 추석특집호에 소개되며 높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

후 국내 기자 여행객들의 많은 방문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RT매거진이 소개한 "미식투어를 떠나고 싶은 지역 베스트 5"에 선정된 지역은 제천시 외에도 전북 전주, 전남 광양,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다.

김원호기자

JECHON GASTRO TOUR 9월
제천 가스트로 투어
제천시 도심 최고의 맛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음식도보여행

주최: 제천시관광진흥위원회 | 주관: 제천시관광진흥위원회 | 후원: 제천시관광진흥위원회

서울시, IT기술로 물자원 통합관리해 환경·경제효과 창출... 대상지 공모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가 많은 도시는 비가 땅으로 잘 스며들지 않아 지하수 고갈이나 도시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도로 위 오염물질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 수질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빗물, 유출지하수 등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막대하다. 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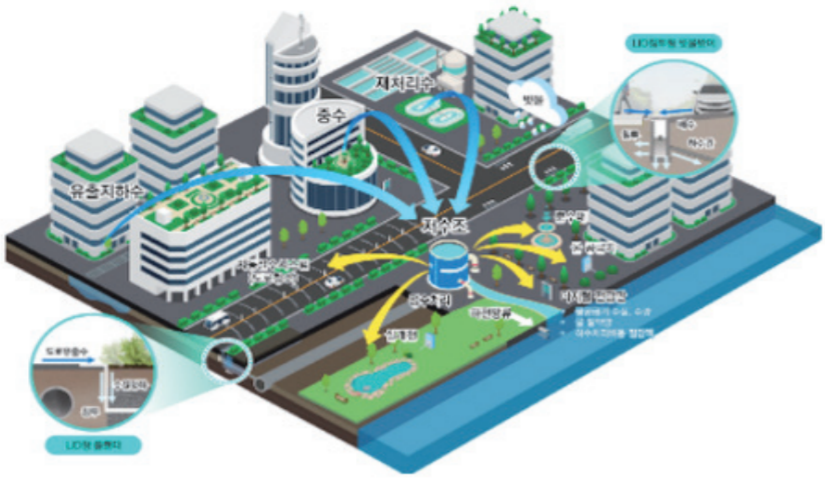
서울시가 IT기술로 물자원을 통합관리해 버려지는 물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 물순환 도시'를 2030년까지 총 10개소에 조성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지역맞춤형·통합형 물순환 미래형 사업이다.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은 다양한 물순환시설을 한 곳에 집약시켜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 등의 풍부한 물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내용이다. 이때 IT기술을 접목해 시설을 모니터링하며 통합관리하고, 시민들이 물순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한다.

시는 물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물순환 회복,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경관개선 같은 환경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1호 사업지로 중랑구 상봉동 일대를 선정

한 데 이어, 2호 대상지를 11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자치구나 주민공동체는 서울시 홈페이지



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하면 된다.

1호 사업지로 선정된 중랑구 상봉동 일대(중랑역~상봉역 1km)는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연간 하수도요금 2억원과 중랑물재생센터 처리비용 5억원을 포함해 연간 약 7억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

다. 1호 사업지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식물재배화분'이 설치돼 도로 유출수를 정화시키고, 빗물이 땅

속 스며들게 도와주는 시설도 설치돼 투수율을 높인다. 빗물을 도로 롤링로·롤핑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한다. 각 시설에 스마트센서를 부착해 빗물침투량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2호 사업지를 선정할 후 내년 실시설계, 공사를 거쳐 2023년부터 IT기술로 물자원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대상지는 ▲ 불투수율 70%

이상(불투수율 60%이상 점수 가능, 단 점수는 차등 배분) ▲ 유출지하수 일 사용량 100t 이상 ▲ 빗물관리시설의 집약적 설치 ▲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친수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된 곳엔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사업대상지는 시민들이 물순환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물순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광판엔 물 공급기 수질·수량, 물 절약량, 하수처리비용 절감액, 온도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을 송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안은 사전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공공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된다. 특히 중수와 하수 재처리수를 활용할 때엔 가점이 부여된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다양한 물자원을 IT기술로 통합 관리해 본격적으로 스마트 물순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환경·경제적 효과와 창출이 극대화되는 만큼 많은 자치구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수원시, 지지부진했던 광고중심광장 조성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광고중심광장(CBD)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고중심광장 조성사업은 2009년 'CBD 및 가로공간 통합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첫발을 땀다. 2015년 9월 사업시행자(수원시·경기도·용인시·GH) 간 '경기도 신청서 및 광고개발 협약'을 체결하며 중심업무지구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했지만 경기도청사 건립 지연, 사업시행자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사업계획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좁혀진 통과구를 찾지 못했던 중심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2월 수원시를 비롯한 사업시행자가 회의를 열고, '중심광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수원시와 경기도·GH는 공동사업시행자회의를 열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심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융합타운을 지하 보차도로 연결해 주차장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중심광장이 경기융합타운과 광고호수공원 등을 연결하면 사람과 지역, 경제와 자연이 어울리는 광고신도시 핵심모델이 될 수 있어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원시는 공동사업시행자회의에서 "지하 보차도 연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GH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경제성보다 도시의 인프라, 이용자 편의, 명소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하 보차도 연결은 광고개발 실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인데,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GH는 경기도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중심광장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

광고 롯데아울렛 뒤편에 조성되는 중심광장은 연면적 1만 2140㎡에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하에는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융합타운을 연결하는 보차도(步車道)를, 지상에는 '보행 브리지'를 건설한다. 지하 보차도가 조성되면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융합타운의 주차장 공유 효과로 중심광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업지구 구간인 광고중앙로사거리의 차랑정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고중심광장이 조성되면 광장 일원은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공동사업시행자가 힘을 모아 진행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대구 로봇, 한국형 로봇융합클러스터로 2단계 도약 준비!

K-로봇플랫폼 조성, 수요처 확대, 기반구축 등 로봇산업 추진방향 발표



대구시는 9월 9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대구 로봇산업 방문 현장에서 대구시를 한국형 로봇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해가겠다는 대구 로봇사업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대구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구축,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로봇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으며, 지난 8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에 성공하면서 로봇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국형 로봇융합클러스터는 대

구가 보유한 로봇전주기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전후방산업과 로봇기반을 확대해 대구시 전역을 로봇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해가겠다는 개념으로,

로봇 소재부품과 SW기업을 육성하는 K-로봇플랫폼 조성, 공공·의료·블류·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로봇수요처 확대, 인재양성과 글로벌 협력확대 등을 통한 로봇산업 기반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대구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국형 로봇융합클러스터 세부계획을 구체화해 대선공약 반영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작년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부지 선정으로 로봇 전 분야에서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게 됐다"며, "로봇기업은 대구로 오라. 대구는 로봇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경북농업기술원 '경북미래농업발전 전략기획단' 운영

경북농업기술원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경북미래농업발전 전략기획단'을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략기획단은 최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지역의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혁신적 농업기술과 신소득 작목을 발굴해 전략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구성된다.

기획단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획팀장 등 28명으로, 전략총괄팀·사업발굴팀·조직활력팀 총 3개 팀으로 이뤄진다.

전략총괄팀은 국내외, 시군별 농업현황과 농업기술보급 체계를 비교해 경북 미래농업 방향 설정과 농업기술보급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발굴팀은 연접시군 공동 대규모 전략사업과 노동력 절감, 기후변화 대응 등 수요자 맞춤형 시범사업을 발굴한다.

조직활력팀은 농업기술보급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농촌진흥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내년 12월까지 10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10과제의 신규 사업 발굴과 '경북 미래농업발전전략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일 농업인회관에서 첫 정례회의를 갖고 스마트팜, 식물공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보급과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등과 같은 경쟁력 있는 작목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신용섭 경북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녹색혁명, 백색혁명의 주역인 농촌진흥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 지역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인천시, 탄소중립 위해 '영흥화력발전 조기폐쇄' 반드시 필요

인천시, 화력발전시설 있는 강원, 충남, 전남과 대정부 공동건의



인천광역시시는 9월 9일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 추진토록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인천 등 4개 시도는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탈석탄이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된 건의문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탈석탄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은 2017년 제2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창립됐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 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우리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흥화력발전의 조기폐쇄가 필요하며, 현재 수립 중인 2050 탄소중립 전략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반영해 탄소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는 2023년에 개최될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인천에서 유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김종남/기자

포항시, '2021 동북아 CEO경제협력포럼' 성황리 개최

포항시는 지난 10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정책'이라는 주제로 '2021 동북아 CEO경제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동체 에코프로 회장의 특별연설, 제1세션, 제2세션, 동시세션(A, B) 순으로 포럼이 진행됐고, 정혜중 포항시의회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별연설자로 나선 이동체 에코프로 회장은 '신성장산업의 도시로 나아가는 포항'이라는 주제로 물류의 중심지이자, 철강도시에서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신성장산업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포항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제1세션은 이강덕 포항시장의 주제 '기업의 혁신을 위한 동북아 중심도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각 지방정부 CEO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제1부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블라디보스토크시 중소기업개발' 및 '코로나19 대비 위기대응조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금감면 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일본 조에츠 산업관광교류부장은 상품인증제도(메이드 인 조에츠) 및 국제박람회와 같은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 훈춘 부시장은 국제화된 경영환경 조성 등 기업 혁신환경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세금감면 및 자금인하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해 현재 포항의 경제·산업 구조를 진단하고, 철강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기업혁신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제1세션 말미에는 동북아 중심도시 간 '경제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의 제안으로 러시아 연해주상공회의소와 중국 훈춘 공상협연회 및 대한민국 포항상공회의소의 교류협력이 체결

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은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기업 혁신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동북아 거점도시 간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 상생협력은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앞으로도 지속될 바란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ESG시대, 동북아 지역 기업의 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한·중·일·러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중국 우진훙 북경 외국어대학 교수의 '중국 디지털경제 혁신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일본 요시노 후미오 타쿠쇼쿠 대학 교수가 'ESG 시대의 일본기업'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 알렌산더 라트킨 블라디보스토크 경제서비스대학장의 '동북아 협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전통가 오동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한국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 발표에 이어 백권호 서울과 학중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에는 남수중 공주대학교 교수, 강철구 배재대학교 교수, 최의현 영남대학교 교수, 전명수 블라디보스토크 경제서비스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구성된 동시세션 파트에서는 '동북아 테크노파크 공동협력사업' 및 '포항 스타트업 글로벌 교류'가 진행됐다. 한·러간 화장품 관련 공동협력사업 추진 MOU를 체결하고, 동북아 지역 청년들의 서로의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지식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세션을 구성해 포럼에 내실을 기했다.

이번 포럼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세션이 현장진행과 온라인 화상회의의 진행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포럼 실황이 실시간으로 한국과 일본, 러시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됐다.

김기현/기자

'배드 앤 크레이지' 이동욱-위하준-한지은, 최종 출연



tvN 하반기 기대작 '배드 앤 크레이지'에 배우 이동욱, 위하준, 한지은이 출연을 최종 확정지으며 드라마 명처럼 크레이지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2021년 12월 방송되는 tvN 새 금토드라마 '배드 앤 크레이지' 측이 이동욱, 위하준, 한지은의 캐스팅을 최종 확정했다. tvN '배드 앤 크레이지'는 유능하지만 '나쁜 놈' 수열이 정의로운 '미친 놈' K를 만나 겪게 되는 인성회복 히어로 드라마이다.

'경이로운 소문' 제작진이 '가장 따뜻한 히어로' 같은 히어로'를 앞세운 전작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에도 없던 히어로의 탄생'을 알리며 독특한 설정과 쾌감 넘치는 액션으로 안방극장을 지극할 것을 예고한다.

여기에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배우 이동욱, 위하준, 한지은이 합류해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동욱은 무의지방경찰청 감찰계 경감이자 유능하지만 나쁜 놈 '수열'을 연기한다. 수열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체면과 자존심 따위 던져버릴 수 있는 속물 형사로 누구보다 태세 전환에 능하다.

그런 수열 앞에 K(위하준 분)가 나

'독특한 설정+쾌감 넘치는 액션' 안방극장 저격 예고

타나면서 타고난 처세술로 초고속 승진을 이뤄낸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드라마 '도깨비', '타인은 지옥이다', '구미호전' 등 로맨틱 코미디에서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믿고 보는 배우의 진가를 공고히 한 이동욱의 색다른 연기 변신에 벌써부터 기대가 높아진다.

위하준은 극중 정의로운 미친 놈 'K' 역을 맡았다. 타고난 정의감으로 팔팔 똘친 K는 불의를 마주하면 주먹부터 내지르는 인물로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될 이 시대 마지막 히어로를 꿈꾼다.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 '18 어게인'은 물론 영화 '미드나이트', '샤크: 더 비기닝' 등에서 선보인 흡입력 넘치는 연기로 대중의 이목을 단단히 붙잡았던 위하준인 만큼 '배드 앤 크레이지'를 통해 필모그래피의 정점을 찍을 캐릭터 변신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한지은은 무의지방경찰청 광수대 마약반 경위이자 수열의 전 여친 '희경'으로 분한다. 희경은 나쁜 놈들을 일망타진할 때의 희열

을 만끽하기 위해 마약 수사계에 지원한 열정지수 100% 형사. 드라마 '꼰대인턴'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던 한지은이 수사를 위해서라면 불꽃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독종 형사 희경을 통해 긴장감 유발자로의 등극을 예고한다.

tvN '배드 앤 크레이지' 제작진은 "배우 이동욱, 위하준, 한지은의 캐스팅만으로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니크한 히어로와 흥미진진한 정의 구현 사이드 액션의 탄생을 자부한다"며 "세 배우가 완성한 유쾌하면서도 설레는 시너지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배드 앤 크레이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크레이지한 재미와 쾌감을 선사할 예정이니 기대해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2021년 12월 첫 방송되는 tvN 새 금토드라마 '배드 앤 크레이지'는 글로벌 스트리밍플랫폼 iQIYI(아이치이) 두 번째 한국 오리지널 작품으로 해외에서는 iQ.com 또는 iQIYI International 모바일 앱을 통해 단독 스트리밍 예정이라고 전해져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현유주기자



티빙 '윤더', 신하균-한지민-이정은-정진영 캐스팅!

티빙 오리지널 '윤더'가 신하균, 한지민, 이정은, 정진영의 '믿고 보는' 라인업을 완성했다.

2022년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윤더'(연출 이준의, 극본 김정훈·오승현, 제작 티빙, 제작 영화사 두동·CJ ENM)는 죽은 아내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남자가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미지의 공간 '윤더'에 초대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만들어낸 세계 '윤더'를 마주한 인간군상을 통해 삶과 죽음, 영원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스크린에서 술한 명작을 탄생시킨 거장 이준의 감독이 선택한 OTT 진출작이자, 첫 드라마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신하균, 한지민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시청자를 설레게 한다. 여기에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이정은과 정진영까지 가세해 기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자신만의 확고한 연기세계를 구축해온 신하균은 아내의 죽음 뒤 공허한 삶을 이어가는 사이언스M의 기자 '재현'을 맡았다.

앞서 신하균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와 '재현'이라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죽은 아내로부터 만나러 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혼란을 겪는 재현의 복잡한 내면을 어떻게 풀어갈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연기력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배우 한지민은 재현(신하균 분)의 죽은 아내이자, '윤더'에 속한 존재 '이후'를 연기한다.

안락사를 선택하기 직전 의문의 계약을 맺은 이후는 남편 재현을 '윤더'로 이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정당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다. 이준의 감독님이 이끌어 주실 새로운 세계가 기대된다"라는 소감에서 한지민의 연기 변신을 더욱 기대케 한다.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이정은은 사람들을 미지의 공간 '윤더'로 초대하는 바이오텀바 운영자 '세이렌'으로 분한다.

이정은은 "영화 '자산어보'에서 인연을 맺은 이준의 감독님의 첫 번째 드라마라는 사실에 감독님을 믿고 고집없이 흔쾌히 출연했다"면서, "제가 애정하는 신하균 배우와 한지민 배우가 주인공을 맡아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세이렌 역으로 활약할 저의 모습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계 없는 배우 정진영은 죽음을 과학으로 접근하려는 뇌과학자 '닥터K'를 연기한다. 정진영은 "이준의 감독이 전작과는 전혀 다른 형식과 장르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 새로운 여정에 함께 하게 되어 설렘과 기대가 크다. 삶과 죽음에 대한 묵직한 성찰이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합류 소감을 전했다.

'자산어보' '동주' '왕의 남자' 등으로 한국 영화의 굵직한 한 획을 그은 '시대극의 대가'이자,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이준의 감독이 완성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과거의 탐색을 통해 현재까지 관통하는 유의미한 질문을 던져 온 이준의 감독. 그가 2022년 근 미래를 배경으로 어떤 시대적 통찰을 담아낼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산어보' '박열' '동주' '사도' '꾼'을 만든 명품 제작진도 의기투합해 높은 완성도가 기대된다. 한편, 티빙 오리지널 '윤더'는 2022년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현유주기자

유미의 세포들, 160여개국 서비스

라쿠텐 비키 "웹툰 기반 K드라마 다수 보유, '유미의 세포들' 기대감 커"

국내 대표 OTT 티빙(TVING)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K콘텐츠 위상을 입증했다.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 '유미의 세포들'이 '라쿠텐 비키(Rakuten Viki)' 등 해외 플랫폼사와의 콘텐츠 유통 계약을 통해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160여개국에 서비스 된다고 8일 밝혔다.

티빙 오리지널 '유미의 세포들'은 세포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평범한 유미의 이야기를 그린 세포 자극 공감 로맨스다. '쇼피킹 루이', '아는 와이프' 등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이상엽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기대를 더한다.

여기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W(더블유)' 등 독창적이고 탄탄한 필력으로 신뢰를 받는 송재정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했고, '그 남자의 기억법', '스무살'을 통해 큰 사랑을 받은 김윤주 작가와 신예 김경란 작가가 집필을 맡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국내 드라마 최초로 실사와 3D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새로운 포맷의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기획과 제작은 스튜디오드래곤이 맡았다.

원작 네이버웹툰 '유미의 세포들'(글/그림 이동건)은 세포의 의인화라는 기발한 상상력 위에 일상을 녹여내며 많은 이들의 인생 웹툰으

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생동감 넘치는 '세포마을'을 탄생시키기 위해 드림팀이 뭉쳤다. 높은 퀄리티로 주목받은 애니메이션 영화 <레드슈즈>의 제작사 로커스(LOCUS)가 애니메이션 부분을 맡아 완성도를 담보한다.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의 기획과 제작을 맡은 스튜디오드래곤 조문주 CP는 "글로벌 인기작들을 집필한 송재정 작가와 레전드 웹툰 원작의 만남만으로도 큰 기대를 모은 작품"이라 소개하며, "유미가 사는 현실 세계와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지는 그녀의 머릿속 세포들의 세계가 동시에 펼쳐지며 공감과 신선한 재미를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선사할 것"이라 전했다.

라쿠텐 비키의 흥재희 콘텐츠사업담당 이사는 "최근 라쿠텐 비키는 '치즈인더트랩',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K웹툰이나 웹소설을 각색한 드라마들을 다수 라이선스하고 있다"라며, "티빙 오리지널 '유미의 세포들'은 특히 드라마의 특정 부분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캐릭터와 스토리에 신선한 재미를 더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티빙의 황혜정 콘텐츠사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올해초부터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며,



콘텐츠 투자를 강화한 결과"라며, "인기 웹툰 원작 '유미의 세포들'처럼 앞으로도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에 K콘텐츠 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등 160여개 해외 시장에 진출한 '유미의 세포들'은 오는 9월 17일 티빙과 tvN에서 국내 첫 공개된다.

최만식/기자



배우 박소담, 한국 공연관광 명예홍보대사

배우 '박소담'이 한국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공연관광을 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배우 '박소담'을 7일 한국 공연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박소담은 2019년 영화 '기생충'을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2016년부터 대학로를 비롯한 연극 무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박경숙 공사 한류관광팀장은 "공연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류스타 박소담이 홍보대사로 나서게 돼

세계 한류 팬의 관심을 공연관광으로 유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대사 박소담은 이날 '웰컴대 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홍보영상 3편에 출연해 한국의 공연관광, 대학교, 2021 웰컴대 학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준다. 27일 시작되는 온·오프라인 축제 2021 웰컴대 학교의 개막식 사회자를 맡았다.

올해 개최 5회차를 맞은 2021 웰컴대 학교는 27일부터 10월29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열린다.

최재은/기자

스테이씨, '스테레오타입' 4만 3617장 판매...초동 신기록

그들 '스테이씨(STAYC)'가 단 하루 만에 자체 초동 신기록을 경신했다. 7일 국내 최대 음반 판매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스테이씨의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의 1일차 음반 판매량은 총 4만 3617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스테이씨의 자체 최고 초동 판매량인 두 번째 싱글 '스테이덤(STAYDOM)'의 3만 5518장을 뛰어넘은 수치다.

앨범 발매 단 하루 만에 가뿐히 자체 초동 기록을 달성해 이목을 끌었다. 또 '스테레오타입'의 1일차 판매량을 통해 한터차트 일간 음반 랭킹(9월 6일자)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스테이씨의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타입'은 두 번째 싱글 '스테이덤' 이후 5개월 만에 발표하는 앨범이다. 하이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블랙아이드필승과 전군이 전곡 프로듀싱을 담당했다.

정동희/기자

